FEB 10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53 1983년 2월 10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February 10, 1983

금년중 토론토에 딜러5~6개 설치

포니, 토론토에오다

일본차보다 2~3천달러 낮은 $5,700선

한국산 5인승 승용차 포니(Pony: "조랑말")가 몬트리얼에 이어 7일 토론토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하오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신항수상무(43)는 시내 쉐라톤·센터·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니의 캐나다 진출에 자신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젊은 베이지색, 속은 진한 회색의 견본차가 전시된 이 자리에는 토론토의 주요 신문·방송 기자, 토론토 한국총영사관의 부영사급 이상 전직원과 주재 은행장(또는 소장), 교포측에서는 장순채 한인회장등이 참석, 아리랑포장이 걷히며 포니가 모습을 드러내자 박수를 보냈다.

포니의 캐나다 상륙을 전의하고 이곳에 현지법인을 설립, 딜러 선정등의 책임을 진 신상무는 포니가 가격, 품질, 피처(Feature: 옵션) 면에서 가장 경쟁적인 일본제 소형차들과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자동차 교포세일즈맨들은 포니의 시판전망이 좋다고 9일 말했다.

포니 모양은 일본제 마즈다 GLC와 가장 비슷하고 엔진사이즈는 1,439CC로 혼다·시빅의 1,488CC보다 약간 작으나 차체는 오히려 크다.

뒷바퀴 드라이브(리어·휠·드라이브)로 4-도어 해치·배에 수동 또는 자동식 트랜스미션.

앞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으면 운전대가 충격을 주는 방향으로 들어가 운전자의 가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장치(Collapsible Steering Column)등 보통 승용차가 가진 모든 옵션을 가졌다.

현대측은 포니가 1)일본차의 철판 0.6~0.7mm보다 두꺼운 0.8mm로 되어있다, 2)휘발유 소모량이 100Km당 6리터로 일본차의 6.5리터보다 적다, 3)일본차는 대부분 〈언레드〉(Unlead) 휘발유를 쓰나 포니는 싼 레귤러를 쓴다, 4)가속성이 좋아 시속 100Km가 되는데 14초가 걸린다(일본차는 14초 이상), 5)주행성이 좋아 150~160Km(약 90마일)에서도 안정성이 높으며 잡음이 적다, 6)장시간 달려도 엔진에 이상이 없다, 7)뒷바퀴 회전식이므로 정비하기가 쉽다는 것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이때문에 포니는 가정의 두번째 차(Second Car)로 아주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금년 6~7월 시판을 서두르는 현대는 기본 차체값을 일본차보다 2~3천달러가 낮은 5,700달러선으로 예정했으며 옵션, 워런티(보증)도 일본차보다 월등이 좋은 선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는 수입과 총판을 모두 맡을 회사가 설립되는대로 (별개회사가 이를 담당, 현대는 제조자로서 그친다) 판매, 서비스망을 확보한다.

딜러는 금년중에 토론토에 5~6개, 온타리오주에 15개등 전국에 40개 정도를 설치하고 내년에 또 40개를 증설한다.

신상무는 포니딜러가 되려면 1)자동차 판매업의 경험(10~20년), 2)최소 1백대분 약 50만달러의 재력이 있으며,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면서 "유경험 교포를 우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론토현대 사무실(96 Steelcase Road West Markham, Ontario L3R 2R8 Tel: 477-0202)은 딜러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11일(금)부터 20일까지 인터내셔널·센터(6900 Airport Rd.)에서 열리는 토론토 자동차쇼에 4대를 출품한 현대는 이 자리에서 딜러 희망자에게 질문서를 내줄 예정이다.

토론토에 6명의 스태프를 가진 현대자동차는 직원을 20~25명으로 늘리면서 금년에 4~5천대, 내년에 8천~1만대 판매를 계획했다.

신상무는 "옵션이나, 워런티, 가격등 중요문제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를 고용, 구성할 회사 간부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말하면서 미국시장을 겨냥한 시험적인 캐나다진출에 대해 교포사회의 전폭적 성원을 요망했다.

국산 포니의 캐나다 진출에 대해 토론토서 자동차 세일즈업을 하는 김병권씨(노스욕·쉐비·올즈)는 "포니의 진출의 성패는 가격과 에프터·서비스라고 말했다.

김씨는 오토매틱·트랜스미션등 기본적 옵션을 포함, 소매가격이 $5,500선이면 우선 가격면에서 일본차에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제 혼다·시빅은 매뉴얼·쉬프트에 기본옵션을 합치면 $5,895이다.

김씨는 울산항 인도가격이 대당 미화 3천달러라면 수송료, 워런티 비용 카버를 위한 마진등을 합쳐 $5,500선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나 "시장개척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며 또 현대는 초기의 난관을 극복할 실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현대가 에프터·서비스등 백업·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완비하고 판매를 시작하기를 희망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장담 못하나, 콘슈머·리포트, 오토·트랜드등 자동차전문지의 좋은 평을 받으면서 발판을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한구씨(그랜트브라운 GM)는 포니가 바깥 모양도 일제와 비슷한데 가격도 옵션면에서만도 약 2천달러가 싸면 시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조의문씨(마빈·스타 GM)는 대쉬·보드와 뒷부분, 문짝, 철판두께등이 좋아 가격에 비해 우수한 차라고 말했다.

조씨는 뒷모양이 완전 해치배도 아니고 쿠(Coupe: 세단)도 아니어서 피닉스나 싸이테이션과도 다른 점이 큰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가장 싼 차인 소련제 라다(Lada)는 소비자단체등의 비평을 받아 현가격은 $5,300(83년형)로 떨어졌으나 82년형은 $4,698로 팔린다.

금년부터는 체코스로바키아에서 스코다(Skoda)라는 차가 들어왔다. 이 차의 예상가격은 $5,198이다.

현대측은 포니는 〈라다〉보다는 훨씬 나은 차라고 말했다.

◆11일부터 토론토 국제자동차전시회에서 선보일 현대자동차의 「포니」. 7일 쉐라톤·센타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항수 상무가 운전석에 앉아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안내를 맡은 교민 손시님양.

북한, 가장 통제된 사회

미 국무성, 연례 인권보고서 밝혀

(워싱톤8일=연합)북한사회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조직화되고 통제된 사회중의 하나라고 8일 미국무성이 내놓은 연례 인권보고서가 밝혔다.

미국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하나의 예로서 북한당국은 82년4월이후 주민들의 국내여행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동네 밖에 나가는데도 여행증이 있어야 된다」고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무엇 때문에 지난해 4월부터 국내여행을 강력히 제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북한의 2개 정보기관이 이같은 국내여행 통제를 관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은 계급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떠들어 대면서도 정권당국은 주민을 출신성분, 사상등을 바탕으로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59년 이후 약 10만명의 재일교포가 자진해서 북한으로 송환되었는데 북한에 도착되자마자 이들은 모두 이데오르기 사상교육이 끝날때까지 북한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

보고서는 또한 남한으로 탈출한 북한 귀순자의 말을 인용, 북한에는 적어도 10만5천명의 "사상범"이 8개의 주요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다고 전했다.

10명중 1명 빈곤

캐나다 사회개발위원회 보고

(오타와)캐네디언 10명중의 1명 이상, 그리고 독신모의 반이상이 빈곤상태에 살고 있음이 8일 발표된 캐나다사회개발위원회(the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연방, 주, 시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연구조사를 실시, 사회복지정책에 자문을 주는 비영리 단체인 이 사회개발위원회는 이날 82년의 경제침체기 동안의 캐나다국민 경제생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12.5%가 최저생활수준 이하였던 81년도 보다 더 악화됐음이 확실하다고 위원회의 경제학자 데이빗·로스씨가 말했다.

연방정부가 정한 작년도의 최저생활선 즉 빈곤층의 기준은 메트로·토론토의 경우 3인 가족이 연수익 13,506달러 이하로 사는 가족이며 캐나다 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67년부터 69년까지 전국민의 17.4%가, 73년부터 79년까지는 13.4%가 그리고 80년도에는 12.2%, 81년에는 12.5%가 빈곤층에 속했다.

토스씨는 특히 경제악화로 가장 타격을 받는 층은 독신모로 82년에는 자녀를 기르는 독신모의 반이상이 빈곤층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단독가입지원 공식요청 없었다"

아베 일본외상 기자회견서 밝혀

(도쿄9일=연합)아베·신따로 일본외상은 9일 한국정부가 유엔단독가입을 위해 일본정부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아베장관은 이 문제가 수월치는 않으나 일본정부는 남북한 동시가입이나 한국 단독가입 지지를 결정했었다고 밝혔다.

아베장관은 이날 자료회의를 마친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혹은 남한의 단독가입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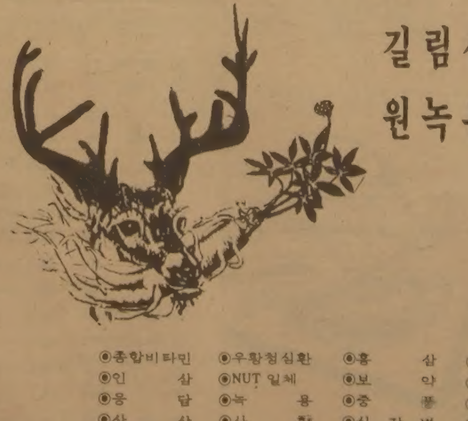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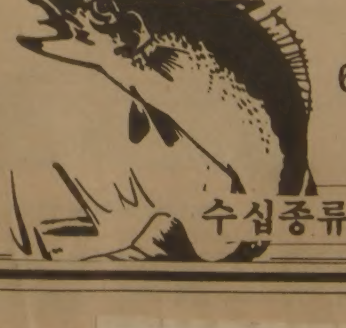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TORONTO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란 대
콤 리
화 점
장
품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길림산녹용, 진품웅담
원녹용, ELK야생녹용
특별세일
⊙산삼 도착
⊙자동전자약탕기
◉종합비타민 ◉우황청심환 ◉홍 삼 ◉간 장 병
◉인 삼 ◉NUT 일체 ◉보 약 ◉비 만 증 ◉부 인 병
◉웅 담 ◉녹 용 ◉중 풍 ◉신 경 통 ◉양기부족
◉산 삼 ◉사 향 ◉심 장 병 ◉고 혈 압 ◉위 장 병
645 BLOOR ST. W. TORONTO
☎ : (416)530-0522, 530-4900

Canadian Fish Market
생선 전문집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코리아타운에 생선가게를 인수, 보다 한국인 입에 맞도록 각종 생선및 신선한 횟감을 구비하고 교민들께 선 보이고자 합니다.
일차 들려주셔서 지도편달 해주시고,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용곤 올림
658 BLOOR ST. W.
(내고향통닭집 옆집)
☎ : 535-2431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와일드·캣츠」하키팀 개선

동계체전 중등부 2연패

서울에서 열린 제64회 전국체육대회 동계체전의 중등부 아이스하키 경기에 출전했던 토론토 와일드·캐츠팀이 개선했다.

선수 14명, 임원 4명으로 구성된 와일드·캐츠는 강호 중동중, 경성중, 휘문중학팀을 연파하고 작년에 이어 2연패했다.

와일드·캐츠 임원단은 8일밤 한국관에서 한국방문 보고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호석 단장은 이같은 좋은 결과는 창설 2년동안 코치인 캐나다인 라인스씨, 감독 원장호씨, 고문 고성호씨 등의 피나는 노력과 학부형들의 후원과 열성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단장은 와일드·캐츠팀이 한국에서 경기를 갖는 동안 많은 응원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개인기와 팀워크,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우수해 본국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단장은 이어 와일드·캐츠는 공식스케쥴외에도 한국 중학올스타팀(5개 중학)과 친선경기를 벌였는데 역시 5:3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고국방문중에 선수와 임원 그리고 동행한 부형들이 해외교포모국방문후원회의 주선으로 1박2일간의 산업시찰(망향동산, 울산, 경주, 포항)과 전방땅굴견학의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며 금년 처음으로 모국을 방문한 7명의 선수는 내년에도 또 가게 해달라고 졸랐다는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한다.

이단장은 이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출전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한국에서는 교포팀에 자극을 받아 휘문고등학교팀이 금년 여름에 캐나다를 다시 방문해 연수와 경기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우승메달을 목에 걸고 기념촬영을 한 「와일드·캐츠」 단원들. 이들은 모국의 동계체전 중등부 하키경기를 휩쓸었다.

토론토 몰슨·테니스대회

보그와 렌들 불참

토론토 메이플·립·가든에서 8일부터 열리고 있는 몰슨테니스경기에 출전을 예정했던 비온·보그 선수가 손의 부상으로 본대회에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같다.

"그의 상태는 양호하나 그가 토론토에 갈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토드·아일랜드병원의 대변인이 밝혔다.

보그선수는 양손표면의 물집염증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으며 모든 외부와의 면담을 사절하고 있는 형편이다.

윔블던테니스를 5년패했으며 6회의 후렌치오픈을 쟁패하고 최근 은퇴를 선언한 보그선수는 6일 지미 코너스와의 프로비덴스경기에서 6:4, 6:4로 패한후 곧장 병원에 입원했었다.

보그선수는 렌들선수에 이어 2번째로 금년도 몰슨테니스에 부상으로 출전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상급의 8명선수가 참석하는 본대회에 이 두 선수가 빠지게 되어 6명의 선수가 챔피온을 결정하게 되었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菊의 사나이

<168>

이상한 女人 ⑬

『그 열쇠를 저한테 주세요. 빠른 시간내에…』

여자가 초조한 빛을 보였다.

『알겠읍니다. 드리지요.』

『어디에 있죠?』

『당신한테 말한다해도 당신은 찾을 수가 없읍니다. 아무도 찾을 수가 없읍니다. 나 이외에는…』

『거래를 하자는건가요?』

타월이 밑으로 흘러내렸다. 두개의 둥근 젖가슴이 완전히 드러났다. 타월은 이제 하체만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듯했지만 가슴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다. 두봉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나도 살아야 하니까요. 아가씨 정체는 뭐가요? 경찰 끄나불인가요. 아니면 경찰에 쫓기고 있는 몸인가요?』

『아까 우리는 같은 신세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같은 신세라구요.』

『어째서 그런가요? 당신은 모세하고 관계있는 사람인가요?』

『네, 그래요. 모세는 나의 정부였어요.』

두봉은 멈칫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호랑이굴에 잘못 찾아들었군요.』

『그렇지는 않아요. 모세를 위해서 복수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그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애인은 아니었어요. 그저 쾌락의 상대였을뿐이에요.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단지 공모자였을뿐이에요.』

“毛世는 나의 정부였고 내가 조종했다”

朴 男 그림

『공모자였다구요?』

『네, 내가 모세의 죽음을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공모자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모세가 당신 누이동생을 협박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나에게 별적으로 자세히 그녀를 농락하고 돈을 울거내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는 그를 부채질까지 했어요. 우리는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랬었군요.』

두봉은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치미는 분노를 눌러참았다.

『모세를 뒤에서 조종한건 나였어요.』

『모세의 정체는? 경찰은 아직도 그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인물인가요?』

『이렇게 된 바에 말씀을 드리지요. 모세는 어떤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범죄조직 말예요. 세계적인 범죄조직이에요.』

『조직의 이름은?』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아뇨. 처음 듣는데요.』

『그럴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알리가 없죠.』

그녀가 다리를 움직였다. 허벅지가 밖으로 나오는 대신 타월이 말려올라갔다.

NHL 올스타 게임

캠벨, 웨일즈 압승(9-3)

그레츠키, 4골로 MVP 획득

(유니온데일=뉴욕)8일밤 이곳 나소우콜리세움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35회 NHL 올스타전에서 캠벨조가 웨일즈조를 9:3의 큰 스코아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날 게임에서 15,000여 관중의 기대를 충족시킨 선수는 역시 웨인·그레츠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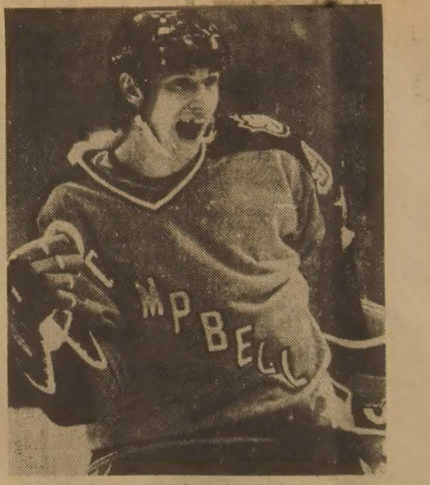
그레츠키 선수는 초반엔 약간 저조하여 1, 2 피리어드에서는 득점을 못했으나 제3피리어드부터 그의 연속 슛이 폭발해 4골을 넣어 팀승리에 수훈을 세웠고 이날밤 NHL올스타의 MVP(최고우수선수)를 획득하고 $14,000상당의 CAMERO Z-28 승용차를 부상으로 수여받았다.

이로써 그레츠키는 3번째의 자가용차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는 "첫번째 차는 여동생에게, 두째번차는 남동생에게, 세번째는 자기소유"라고 기뻐했다.

그레츠키는 한 피리어드의 최다득점, 한 게임의 최다득점을 동시에 수립한 선수가 되었다.

이날밤 패배한 웨일즈의알·아버코지는 "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대세가 그렇지 않았고 그레츠키는 과연 공격 명수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말하면서 "그는 훌륭한 선수"라고 격찬했다.

처음으로 캠벨조의 코치를 맡았던 베일손씨는 게임이 끝난후 싱거운듯 "이것이 게임의 전부인가"라고 기자들에게 답변했다.



◆올스타중의 스타 웨인·그레츠키 선수. 8일밤 NHL올스타·게임에서 그는 4골을 넣어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되었다.

〈Winds of War〉 대인기

매일 CTV 채널9서 방영

CTV(채널 9 토론토지역 케이블 8)로 7일부터 매일밤 방영되는 2차대전을 주제로 한 TV연속대하극 〈Winds of War〉는 방영시간 동안 상가가 한가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미국의 ABC방송이 공급하는 이 TV연속극은 로버트·미참, 알리·매그로가 주연하며 CTV에서는 10일까지 매일밤 9시부터 11시까지, 11일(금)과 13일(일)은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방영된다.

페일·애비뉴에서 그로서리·스토어를 경영하고 있는 교민 Y씨는 이틀째 계속 저녁에 손님이 뜸해졌는데 이는 분명 〈Winds of War〉를 보느라 집에 있기 때문이라고 8일 말했다.

ABC가 4년에 걸쳐 4천만달러를 들여 만든 〈Winds of War〉는 작가 Herman Work가 쓴 소설 World War II를 영화화한 것으로 2회분 시리즈가 방영된 9일 아침 현재 ABC가 밝힌 미국 시청율에 따르면 〈Roots〉의 시청율을 능가한다.

캐나다 시청율은 앞으로 3~4주 있어야 밝혀질 것이나 CTV측은 지금까지 최고였던 〈Shogun〉의 5백만 시청자기록을 능가한 750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북미를 총 합치면 9천만명이 이 영화를 시청한다는 계산이다.

김대중씨가 말하는 납치진상 ⑪

가족생활 생각코 결단

"병치료후 귀국한다" 통고

미 국 으 로

미국행 권고

"아까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제 미국행 문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당신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도 오게 하여 의논하였지요."하면서 그 친구들의 의견을 나에게 전해 주었다.

"확실히 출국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대중씨의 생명이요, 병치료이다. 그는 병세에 따라서는 대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수술할 경우 병원과 의사를 못믿는 것은 아니나 대수술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병치료만은 꼭 미국에 가서 받아야 한다. 72년10월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체제」 때도 병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가지 않았던가."

시련받은 차남

내 머릿 속에는 벗들의 이러한 충고외에도 가족사정이 들어 있었다.

내 아들들은 아무 직장에도 취직이 안된다. 2남 홍업은 만32세가 되는데도 결혼도 안하고 있다. 실은 결혼상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대가 생겨 막상 결혼하려고 하면 대개 그쪽 부모가 정부관련자나 장군, 혹은 실업가 등으로서 그쪽 부모의 반대에 부딪쳐 깨지곤 했다. 그애(홍업)는 이제까지 다른 점에서도 여러가지 시련을 받았으며, 공부도 제대로 했는데, 결혼도 못하고 놓고 있다. 이것은 부모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에 닿은 82년12월23일 기자회견에서 3남 홍걸군(19세, 오른쪽끝 선 사람)과 2남 홍업씨(32세, 중앙)를 소개하는 김대중씨(앞 좌)

37세의 장남 홍일은 나와의 관계로 인해 감옥생활도 경험했다. 그러나 처자가 있고, 그나름대로 일단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

둘째 홍업은 미국의 교회에 부탁하여 매우 좋은 조건으로 유학제의를 받은 일이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 신청서를 내어도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만약 내가 출국하면 그애도 데리고 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한 아내도 아주 지쳐 있었다. 가족을 위해서도 휴가·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하느님이 주신 기회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려고 하면, 미국에 가더라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다른행동은 자유

출국은 내가 바란 것은 아니었다. 내측에서 조건을 내밀 여지도 없었다. 다만 나는 "미국에 가서도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같은 정치조직은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밖의 행동은 자유라고 생각한다. 병을 치료한 후에는 귀국한다."고 내 뜻을 당국에 전했다.

이렇게 하여 미국행은 결정되었다.(계 속)

「온」주 한인대학생회

문학작품 공모및 수학경시대회

학구력 장려와 우수 후배 양성을 목적으로 매년 수학경시대회를 개최해온 온타리오주 한인대학생회(KUSA)는 금년들어 처음으로 문학작품을 현상공모한다.

문학작품 현상공모의 참가자격은 20세이하(62년 2월20일 이후생)의 온타리오 고교재학 한인학생으로 응모요령은 한인사회, 이민생활의 경험등을 소재로 한 수필을 영어 혹은 한국어로 쓰면 된다.

신청마감은 3월9일(수)이며 한글은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영문은 500단어이다. 우수작과 장려상이 시상된다.

보낼곳은 K.U.S.A. 173 Roxborough Dr., Toronto M4W 1X7이다. 문의전화 964-6672 이영희, 421-8360 김은희.

한편 KUSA는 한인장학재단과 한인재미과학기술자협회 온타리오주지부의 후원으로 오는 3월12일(토) 11시 제6회 수학경시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20세 이하의 온타리오 고교재학중의 한국학생으로 시험은 9, 10, 11학년의 주니어부, 12, 13학년의 시니어부로 나뉜다.

시험장소로 토론토대 Mclennan Physical Lab Room 102 60 St.George St.이며 등록은 2067 Islington Ave, #1114, Weston, Ont, M9P 2R8로 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3월9일(수)까지 문의전화는 247-2998 김종수, 463-1234 임정혁이다.

맹인후원회 정기총회

83년도 새 회장에 김홍씨

온타리오 맹인후원회(회장 원종필)은 지난 5일 하오1시 베델교회에서 가진 정기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김 홍씨를 선출하고, 부회장에 최춘태씨, 사무장에 이인식씨, 회계에 이병영씨를 각각 뽑았다.

맹인후원회는 또 82년도 수입·지출결산보고에 이은 새해사업을 계획했다.

이날 결의된 새해 계획으로 이대교수이며 김자경오페라단 단장인 소프라노 김자경씨의 자선음악회를 주선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새 감사에는 문가자, 박홍철씨가 선임됐다.

온타리오주 맹인후원회는 작년에 한국의 맹인 10명을 개안수술로 광명을 찾게 해주었고 맹인학생들에 장학금을 주었다.

13일에 개업파티

에코시스 가구점

고급가구를 취급하는 김만구씨 경영 〈에코시스 가구점〉이 확장이전 자축회를 음력설날인 오는 13일(일) 하오3시부터 9시까지 갖는다.

영·스트릿과 에그린톤·애비뉴의 쇼핑·몰 안에 있던 이 가구점은 최근 21 본·로드(Vaughan Rd. 1440 Bathurst St.)로 옮겼다.

세인트·클레어 남쪽, 베더스트·스트릿과 본·로드가 만나는 곳에 있는 새 상점은 전에 연쇄가구점 〈펫·보이, 그후 〈콘슈머·디스트리뷰팅〉등 큰 업소가 있었던 곳이다. 전화는 657-1785.

교 민 동 정

◆박용곤(생선가게 경영)=3년간의 그로서리가게 매니저생활을 청산, 지난 8일부터 코리아타운의 포르투갈 사람이 경영해온 생선가게를 인수했다.(658 Bloor St. W. Tor. Canadian Fish Market, Tel: 535-2431 「내고향통닭집 옆」)

교포들의 입에 맞는 생선및 각종 신선한 횟감을 구비, 봉사하겠다고.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600여각종비데오대여
678 BLOOR ST. W.
☎ : 532-0210
한국비데오센터
대표 손병헌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오 뎅 백 반	$2.95
탕 국 수	$2.95
우 동	$2.95
짜 장 면	$2.95
김 밥	$2.50
통 만 두	$2.95
곰 탕	$2.95
비 빔 밥	$2.95
불 백	$4.95
갈 비 백	$4.95
생선찌게백	$3.75
두부찌게백	$3.25
만 두 국	$2.95
떡 국	$2.95
떡 만 두 국	$2.95
된장찌게백	$3.25
순두부찌게백	$3.25
통 닭	$4.95
1/2 닭	$2.95

☎537-0432
내고향
통닭집
658½ BLOOR ST. W.

실협뉴스

K.B.A. 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Central Billjng System)

중앙지불제도 구체화 연구

지난8일 협회의 차회장단과 이사회의 간부들은 6일 협동조합의 설립과 때를 같이하여 협회차원의 중앙일시지불제도(Central billing system)를 구체화하기 위해 외환은행 이수신 전무등 간부진과 수시간에 걸쳐 금융지원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앙일시지불제도는「One billing system」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협회가 구상하고 있는 이 제도가 실현만 된다면 회원각자는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면서 벡커(Becker's)나 맥스밀크(Mac's Milk)등의 체인스토어와 같이 상점에 배달되는 상품에 대하여 현재의 현금지불제도(Cash on delivery)에서부터 Charge system으로 전환되며, 협회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회원들의 구매총액을 지불하게 된다.

차회장은 "이와같은 중앙지불제도만 구체화될 수 있으면 지금껏 협회차원에서의 대공급업자에 대한 허약점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어 강력한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 최소한 현재의 이윤수준에서 상당한 이율의 증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어도 맥스나 벡커등의 체인스토어가 획득할 수 있는 협상수준 이상은 획득하리라 확신한다. 한편 우리 회원들은 공급회사들로부터 일정기간의 신용거래기간(Credit Term)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재고(Inventory)에 투입된 부분의 돈을 유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협동조합의 설립이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해결방법이라면, One billing system은 상점에 배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이 또한 협동조합의 설립과 더불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연상될 수 있으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굳게 단결될 수 있는가에 그 관건이 있으리라 본다.

협동조합추진자문소위원회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

작년 10월 총회 당시 "협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이사회의 추진위원회가 정관작성등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는 협회의 사활을 좌우하는 주요사업이므로 이사회 외부의 5인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자"는 장추국씨의 발의가 가결되었었다.

협회는 이사회 분과위원회가 결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추진자문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최승낙(캐나다 한국외환은행장)
◉이형인(제5대 실협회장)
◉김태진(제 2·3대 실협이사장)
◉강찬영(고문변호사)
◉심상수(고문공인회계사)

성장하는 우리실협
성공하는 나의사업

창립10주년「실협의 밤」

기증1호 : 서울여행사—서울왕복권
기증2호 : 윤 중 태씨—서울왕복권

협회는 3월26일(토) 하버케슬힐튼(Harbour Castle Hilton)호텔에서 열릴 본 실업인협회의 창립 제10주년「실협의 밤」행사를 위해 준비위원회(위원장—박경택, 부위원장—김풍수·정상우)를 구성하였다.

창립 10주년이라는 큰 의미외에도 회원 전체의 숙원사업인 협동조합설립을 위한 단합대회이기도한 이번 파티는 범교민적 행사의 밤으로 오픈할 것이며, 캐나다정부측의 다수 정계요인과 각종 생산·공급업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협」의 저력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총 참여인원 2천명으로 하버케슬힐튼의 전 Conference Room을 다 차지할 것이며, 연예프로는 한국인가수 4명, 코메디언 1명, 서양가수 1명이 출연할 예정으로, 이를 위하여 준비위원회는 한국및 미국각지의 연예인협회와 접촉중에 있다.

지난 2월3일 서울여행사의 최동주 사장과 치과의사 윤중태씨는「실협의 밤」행사기사가 실협뉴스에 소개되자 자진하여 서울왕복 비행기표를 기증하겠다고 전해 왔으며, 각종 생산·공급업자및 많은 교민업체들이 기증을 희망하고 있다.

이날 파티의 총경품및 상품은 한국비행기표(10매정도)를 포함 5만여달러이상이 될 것이라 한다.

경로잔치 열어

듀람·오샤와지구 실협

듀람, 오샤와지구 실업인협회(회장 남동회)는 2월12일(토) 오샤와 소재 박태식 회원댁(233 Maclaren St, Oshawa)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한다고 한다.

듀람지구의 남회장은 '토론토의 부모님들은 그곳의 노인회 활동이 활발하여 다각적인 교제활동과 교회를 통한 친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곳의 부모님들은 거리상 고립되어 있는 관계로 상당히 외로운 상태에 있다. 우리 실협이 다소나마 지역교민사회에 봉사하고자 경로잔치를 개최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잔치는 척사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여흥순서와 더불어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주최자들은 듀람과 오샤와지구의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락처:남동회(668-8411), 박태식(576-0432).

한국·캐나다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실협상대 인권고발

초시 부인

온타리오의 초지타운 소재 코너스토어 경영주 모하메트·초시부인은 지난 1월 실업인협회를 상대로 온타리오주정부의 인권옹호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에 고발하였다.

초시부인은 지난 82년8월 이후 수차에 걸쳐 실협사무실로 전화하여 자신이 본 협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한바 있으나, 한국인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 실협을 상대로 하여 인권옹호위원회에 고발하였던 것이다.

본 협회는 최근 수년간 온타리오주내 그로서리업계에서 그 역량이 서서히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 경영주들이 협회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외국인 준회원들이 협회가입후 받는 혜택으로 한인 정회원들과 번번한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있어 현재 준회원의 가입을 일단 중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아뭏든 실협의 큰 발전중의 일면이라 생각되어 감사할 일이 아닐지!

Retail Business와 컴퓨터(하)

엄 주 면

예를 들어, 약 1,000종의 상품을 가진 Retail Store의 업무를 종류별로 나열해 본다면,

1)상품을 판매하는일
— Cash Registering & Print Customer Receipt,
— 상품안내
— Baggaging
2) 상품구입과 진열, Price Tagging
3) 판매분석과 수요예측
4) 보고서 작성
— Sales Tax Report, etc,
5) 지불사항
— Employee Salary — (Income Tax, CPP, UIC etc, Remittance)
— 장비, 시설의 감가상각및 보수
— Store Rents
— Hydro, Water & Maintenance
— Telephone, etc,
6) Profit & Loss Statement & income statement
7) 기타: 청소, 상점 실내장식 etc, 등이 된다.

상기 업무중 1)과 7)은 역시 사람의 손을 빌려야만 되겠고, 2)~6)은 컴퓨터가 상당한 역할과 도움을 줄 수 있다.

최신 개발된 P.O.S.(Point of Sales) system을 중심으로 논해 본다면,

a. 상점에 진열된 상품은 U.P.C.(Universal Product Code), 혹은 K.B.A. Product Code로 표기되어 있고,

b. 상점에 있는 Small Business Computer에 위의 상품 Code, 원가, 소매가격, Special Discount(만일 있다면), 제조사명, Expiry date, Rebate rate, 월별매상등이 수록되어 있고,

c. 컴퓨터에 연결된 Bar Code Scanner(그림참조)가 Sales desk에 설치되어 있다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집어서 Sales desk에 가져오면, 판매원은 Bar Code Scanner로 상품 Code를 읽어 컴퓨터에 수록된 Retail Price와 Discount Price를 계산하여 고객용 영수증을 즉석에서 찍어내게 되는 것이다.

역시 판매원은 위의 영수증과 상품을 백에 넣는 일을 하게된다.

한편 컴퓨터는 위의 모든 판매상황을 기억하여 두었다가 매일 마감후에

a. 상품별 총매상, 수량보고서

b. 그날의 소요상품 보고서

◆새시대의 총아 "Home Computer"

•상점 지배인의 확인후 Purchase order list를 만들 수 있음.

c. Cash Balancing과 Adjustment등의 일을 할 수 있다.

가령 각 상점별로 위의 내역을 조그만 녹음기에 녹음하여 두었다가 매일 K.B.A. 협동조합 본부에 보낸다면 협동조합의 컴퓨터가 녹음테입을 읽어 그날의 소요상품 배달을 상점별로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협동조합 본부 컴퓨터는 매일 각상점별 소요상품에 대한 배달을 통해 더욱 정확한 상품수요 예측, 계절적, 기타 변동 model을 통한 판매분석을 통해 보다 확실한 투자와 확대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힘이지만 역시 단합을 통해, 서로 더욱 도울 수 있는 것이 비지네스의 원칙이라면, 컴퓨터는 이 수행을 K.B.A. 협동조합과 소매상을 위해 정확하게 도울 수 있다.

지면상의 제한으로 상세한 내용은 피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란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7
549 BLOOR ST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의 자랑입니다
▲광고문의: 533-2361~4
▲구독신청: 533-2361

三國志 560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알림

(Appointment)

협회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 카나다정부기관과의 유대관계, 대교민관계, 상도의 문제, 협동조합의 설립문제등 제반업무 수행을 원활키 위해 아래와 같이 본 협회의 자문위원을 증원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자 문 위 원

김영대(제4대 회장)
김정곤(제3대 회장)
김태진(전 이사장)
박인순(전 한인회장)
박희민(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유영린(코리언저널 사장)
이근우(전 변호사)
이병권(체육회장)
이상철(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이형인(제5대 회장)
장순채(한인회장)
정철기(민중신문 사장)
조성준(교육연구회장)
최승낙(캐나다한국외환은행장)
홍중표(토론토시경찰 불평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가나다순)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1983년도 이사회분과위원회 공고

1983년 본 실협의 이사회분과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기 이에 공고합니다.

이사장 : 서춘경 부이사장 : 이춘수
총무이사 : 이 휘 서기이사 : 이학현
감사 : 박남희, 서동춘, 현영일
선거관리위원회 : 김관영, 박광철, 원종필, 장추국, 한천석

1. 상도의 분과위원회: 위원장—배경락, 부위원장—서정길
박남희, 유영갑(R), 이영민, 장추국, 전기석
2. 조직분과위원회: 위원장—송재규
김용규, 송기선, 이 휘, 조한권
3. 협동조합 분과위원회: 위원장—이춘수, 부위원장—우희두
김관영, 이학현, 한천석, 홍사렴
4. 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원종필
강기원, 조용구, 최복기
5. 홍보분과위원회: 위원장—박광철
나상선, 박찬도, 최호영
6.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이진효
강춘남, 김명정, 이상철
7. 섭외분과위원회: 위원장—유영갑(Y)
박경택, 이동환, 임철원
8. 봉사, 친교분과위원회: 위원장—함덕상
김희삼, 송완일, 이형택, 임승철
9. 회칙개정분과위원회: 위원장—장가진
강창흡, 박천봉, 최상수
10. 도너츠업분과위원회: 위원장—강춘남
최창복
11. 세탁업분과위원회: 위원장—이형택
이진효
12. 청과업분과위원회: 위원장—한천석
이동환
13. 요식업분과위원회: 위원장—나상선
서동춘
14. 기술업분과위원회: 위원장—김희삼
송완일
15. 서비스업분과위원회: 위원장—임승철
현영일

한국일보

휘발유값(보통) 10·8% 引下

오늘부터 油價 전면調整

프로판(일반) 9·5% 내려

輕油·등유는 소폭引上

휘발유	고급 1ℓ	1,060→890원
〃	보통 1ℓ	740→660원
프로판	1kg	818→740원
등유	1ℓ	292→297원
경유	1ℓ	278→283원

동자부는 6일 0시를기해 휘발유, 벙커C油, 프로판가스및 부탄가스등 LPG가격을 인하하고 등유, 경유값을 소폭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가격조정 내용은▲고급 휘발유는 16·0%▲보통휘발유는 10·8%▲프로판가스는 일반용 9·5%, 도시가스용 12·0%▲부탄가스는 일반용 11·1%, 도시가스용 12·0%▲벙커C油 1·5%▲重油 0·6%씩 각각 내리고▲경유는 1·8%▲등유는 1·7%씩 올렸으며▲나프타가격은 현행가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소비자가격은▲고급휘발유가 ℓ당 1천60원에서 8백90원으로 1백70원▲보통휘발유는 7백40원에서 6백60원으로 80원▲프로판가스는 일반용이 kg당 8백18원에서 7백40원으로 78원이 각각 내렸다.

또한▲경유는 ℓ당 2백78원에서 2백83원으로 5원▲등유는 ℓ당 2백92원에서 2백97원으로 5원이 각각올랐다. 이번 석유류값 조정은 올들어 특별소비세율과 일부 원유도입가격의 인하에따라 단행된것이다.

나프타가격은석유화학공업 지원을위해 조정하지않았다.

동자부는 점차 油價결정방식을 정부의 직접규제방식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우선 국민생활과 직접관련이 적은 용제와 제트유를 이번 가격고시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자부는 이효과를보아 단계적으로 자율화대상 품목을 확대해나가기로했다.

이번 유가인하로 도매물가를 0·21%의 인하효과를가져오게되고 산업체의 연료비부담은 연간약 4백50억원이 경감된다.

한편 동자부는 앞으로 사우디產등 해외원유가격이 내리게되면 국내기름값을 다시 전면인하조정할 방침이다.

◇油類價 조정안

(소비자가격기준 ℓ당=원)

구분		현행	조정	조정률
휘발유	고급	1,060	890	-16·0
	보통	740	660	-10·8
등	유	292	297	+1·7
經	油	278	283	+1·8
重	油	218,04	216,73	-0·6
벙커	C油	207,27	204,10	-1·5
나 프	타	155,35	155,35	—
프로판가스 일반	kg	818	740	-9·5
도시	가스	406,95	385,11	-12·0
부탄가스 일반	kg	720,03	640	-11·1
도시	가스	405,50	356,84	-12·0

슐츠美國務 오늘 來韓

韓·美·日 3角安保등 협의

슐츠美국무장관이 李範錫외무장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키위해 6일하오2시55분特別기편으로來韓한다.

슐츠장관은 來韓직후인 이날하오5시 외무장관실에서 李範錫장관과 韓美외상회담을갖고▲韓美안보협력강화방안▲한반도평화정착방안▲太平洋정상회담문제▲經協문제등 상호관심사항에관해 협의한다.

슐츠장관은 이번 訪韓에앞서 일본과 中共을 방문, 이들 국가들과 東北亞정세및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를 거론한것으로 알려져 이번 외상회담에서 南北韓의 유엔동시가입및 南北韓 交叉승인문제에 관한 日·中共의 반응을우리정부에 전달할것으로 보인다.

南北韓교차승인문제에 관해 우리정부는 융통성있는 자세로 美·日·中·蘇등이 교차승인하는 4개국案과 여기에 南北韓을 포함한 6개국案중 어느것이나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며, 일본과 中共이 南北韓을 먼저승인하고 그다음에 美·蘇가 南北韓을 승인하는 단계적 교차승인방식도 받아들인다는 입장인것으로 알려지고있어 슐츠장관이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슐츠장관은 이번 외상회담에서 미국의 對韓방위지원을 거듭 다짐 할 것으로 보이며 東北亞에서의 韓·美·日3角안보협력체제도 거론될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외상회담에서 특히 한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防産品의 제3국수출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미국의 對韓FMS(對外군사판매차관)증액및 상환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슐츠장관의 訪韓은 미국의확고한 방위공약을 재다짐하는것으로 이번외상회담에선 우리나라防産品의 제3국 수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우리防産品의 해외판매문제는 韓美연례안보회의의 핵심현안이 되어왔는데,한국은 이번외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와 방위산업시설유지를위해 고도의 정밀병기를 제외한 소총 대포 장갑차등 단순병기의 제3국수출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南北韓교차승인 노력

日、美·中共 秘密접촉

【東京=宋孝彬특파원】全斗煥대통령은 지난1월에 열렸던 韓日頂上회담때 나까소네(中曾根)일본수상에게 일본이 南北韓의 새로운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을 위해 협력해줄것을 요청했으며, 일본정부는 이요청을 받아들여 미국및 중공과 비밀접촉을 벌이고 있는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5일보도했다.

아베(安倍)일본외상은 지난1월 나까소네수상의 訪美때 슐츠美국무장관을 만나 한국측 협력요청을 협의했으며 현재 중공에 방문중인 슐츠美국무장관은 이문제에 대한 중공측 반응을 타진하고 있다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全대통령이 나까소네수상에게 협력을요청한 新남북한교차승인 방식이란 우선 일본과 중공이 南北韓을 동시에 승인하고 이어서 미국과 소련이 南北韓을함께 승인하는게 주요골자인것으로 알려졌다.

國稅廳 最大규모 人事단행

書記官百29명異動

국세청은 지난1일자로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직세무공무원전원을 인사이동한데이어 다시 5일자로 서기관급(4급) 1백29명에대한 대규모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 서기관급 (세무서장및 본청과장) 인사내용은 국세청서기관급정원1백32명중 1백명이 자리를옮기고 29명이 승진한것으로 지난66년 국세청이 발족한이래 최대규모의 인사이동이다.

본청의경우 서기관 19명중 총무과장,비상계획담당관,감사담당관등 3명을 제외한 16명이 자리를 옮겼으며 서울지역의 26개 세무서중에서도 17개 세무서장이 전보되어 국세청내의 서기관급중에서 20여명을 제외한 전원이 자리를 옮겼다.

이로써 작년 5월 安武赫국세청장이 취임한 이래 본청 차장을 비롯, 6개지방청장및 본청국장등 부이사관급이상 간부직원 전원이 자리를 옮겼고 4급 (세무서장및 본청과장급)도 거의 대부분 자리를 바꾸었다.

한편사무관급및그이하에대한 후속인사는 2월중순께단행될 예정인데 인물실무자급인사도 대폭개편될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쿠웨이트石油相 秘密회담

油價 배럴當 4弗引下합의

【뉴욕=聯合】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석유상은 지난1일 비밀리에 유가를 배럴당 34달러에서 30달러로 인하하는조치에 합의했다고 비즈니스·위크지가 4일 보도했다.

이잡지는 양국 석유상들이 동료석유수출국기구 (OPEC)석유상들에게 페르시아만국가들이 불가피한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소급해서 적용할수도있는 유가인하에 동참할 기회를 한번더 줄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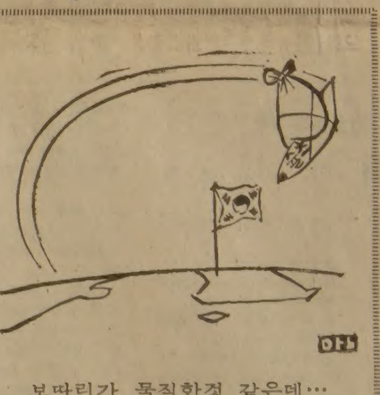
◇슐츠-鄧小平 환담 中共을 방문중인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은 5일 人民大會堂에서 中共 최고지도자 鄧小平과 환담하고 있다. 슐츠장관은 中共지도자들과의 광범위한 회담이 끝난후 鄧에게 『몇가지 미합의사항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聯合】

美, 84對韓군사借款 2억3천만弗 배정

【워싱턴=李文熙특파원】미국정부는 5일 84회계연도 美대외안보 지원계획인 한국에 대한 군사판매차관(FMS)으로 2억3천만달러를 배정, 군사교육 훈련부분에 1백85만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이날 국무·국방성이 함께으로 발표한 FMS 차관배정상황은 83년보다 2천만달러가 늘어났으며 82년도에는 1억6천만 달러였다.

社會漫評



보따리가 묵직한것 같은데…

金국민總裁 領袖회담 제의

"選擧法 現實맞게 개선을"

金鍾哲국민당 총재는 5일 國政과時局전반을 폭넓게 협의하기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與野 領袖회담을갖자고 제의했다.

金총재는 이날상오 당사에서 총재再選후 첫 기자회견을갖고 『정치발전과 경제難局타개, 그리고 격변하고 있는 美·蘇·日의 방위체제 추이등 韓半島주변정세 변화에 대한 대책강구와 조국통일을 위한 국민여론의 수용등을협의하기위해 與野領袖회담을 제의한다』면서 『民正黨전당대회가끝난후 작년6월의 靑瓦臺회담에 참석했던 與野대표들이같이만나 현안문제를 협의하자』고 말했다.

◇金鍾哲총재

그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질수 있도록 현행각종선거제도개선을 비롯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政治法들을 과감히 改廢해야한다』고 전제, 『이를위해 黨內에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제연구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정부를 포함한 他黨과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社告

한국일보文化센터 開館 한돌

새봄講座 受講신청 접수

3월2일 開講

시민들의 문화사랑방 한국일보 문화센터가 오는 3월2일로 개설 한돌을 맞아 89과목 1백87강좌로 짜여진 봄학기 프로그램을 확정,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즐기면서 배우는 한국일보 문화센터는 지난1년동안 다양한 강좌를 개발, 각계의 권위있는 강사진을 초빙하여 8천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읍니다. 문화와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서울의 새 명소이자 커뮤니티 칼리지로 성장한 한국일보 문화센터에 오면 무엇이든지 배울수 있읍니다. 성별 학력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한국일보 문화센터의 봄강좌에서 배우는 즐거움, 삶의 보람을 가꾸시고 풍요로운 내일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성원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접수장소=한국일보빌딩6층

▲접수기간=2월10일부터

▲문의전화=732)4151~3교환241·161

地平線

정보가 생활화 되어있지 않았던 조선朝에서도 통보수단은 있었다. 朝報, 邸報, 寄別紙라는 관보였다. 발행기관이 따로 있지 않았고, 승정원에서 하루하루 통보에필요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내용을 각관청에서나온 寄別書吏들이 베껴가서 돌려보았다. 물론 열람은 중앙과 지방의 일부관리로 제한되었다. 광범위한 정보기능의 필요성이 강조된것은 1890년대에 들어 개화사상이 밀어닥치고부터 였다. ▼신문발간을 고종에게 건의하고 추진을서두른 사람은 당시 한성判尹인 朴泳孝였고 실무책임은 최초의 해외유학생으로 알려진兪吉濬이맡았다. 이계획은 좌절되었지만, 얼마뒤인 1893년8월17일에 博文局이 설치되고 그해 10월30일에 『漢城旬報』가 탄생했다. 순한문의 창간사가 담긴 旬報는 10일마다 간행되었으며 크기는 세로25㎝ 가로 9㎝로 18면이었다. 그 형태가 오늘의잡지와 비슷했다. 올해를 우리 신식출판 1백년으로 잡는것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일보 5일자 7면) ▼旬報의 내용은 다채로왔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사건도 번역해 옮겼으며 각국의 정치·경제·법률·과학기술·물가등도 소개해 주었다. 발행14개월만에 갑신정변으로 박문국 시설이 파괴되고 중단된것은 애석한 일이었다. 그러나 신문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짐에 따라 이듬해 漢城周報로 속간이되어 다시 햇빛을 보았다. 1894년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출판사가 생겼다. 廣印社라는 이 출판사는 일본에서 한글활자도 들여와서 「忠孝經集註合璧」과 「農政新編」같은 책을 펴냈다. 출판문화의 요람기였다. ▼출판이 문화의 척도임은 새삼 강조 하기조차 쑥스럽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을 소유한것은 우리나라다. 지금부터 1천2백여년 이전 것으로 보이는 목판인쇄 佛經이 지난66년 경주 불국사에서 나왔다. 기네스북에도 오를만큼 자랑스런 기록이다. 오랜전통만을 내세울게 아니라 출판문화 향상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하겠다. 책따라 독서캠페인을 벌이는 일은 이젠 민망스럽고 수치로 여겨야한다. 문화국민의 긍지는 책속에서 태어난다. ▼지난해 출간된 책은 81년에 비해 21·7%가 늘었다. 3만종 가까운 책이 쏟아져 나왔다. 이중 43%가량은 학습참고서라니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름다운 책을 읽는것은 책이 우리와 속삭이며 우리 영혼이 그것에 대답하는 대화」라고 알트레·모르와는 타일러 준다. 출판의 낙후만을 한탄말고 그를 북돋워 줄 독자의 열의가 아쉽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기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0)
690-5217(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Tel: (B)488-2444 (R)759-4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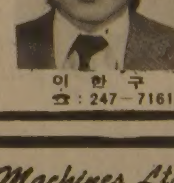
이민수속에 관한
제반사항
=무슨 내용이든 기밀엄수합니다.=
□취업이민
□초청이민
□WORK PERMIT
□유학비자
자세한 상담은
몬트리얼의 Mr. 윤에게
연락하세요.
☎: 1-(514)-933-0217
1827 St. Cathorin,
Montreal H3H 1M2
*50% ~70% 수속비
반환 보장
Consultin Immigration Services
Immigration Consultation

한국인이 경영하는□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중국 식당
"단체손님 환영"
■Free 주차장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주문시 배달합니다.
■매일(년중무휴)
Bathurst
St. Clair
Vaughan
☎ 오전 11:30~새벽 1:00까지
538 St. Clair W.
(세인·클레어×베다스트)
656-0456
유 창 준 654-6609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Monami Restaurant
もなみ
EGLINTON AVE
BAYVIEW AVE
Monami
OPEN Mon~Fri, 11:30~2:30
◎각종 스시및 일본식 요리
아늑한 일본식 「다다미방」이
점심시간에도 이용하실수 있게
준비되어 있읍니다
114 LAIRD DR. Toronto
PHONE: 421-6016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Grant Brown
GM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美·中共「軍事교류」검토

슐츠美國務、中共國防相과 전격會談

【北京羽AP=聯】 中共을 방문중인 슐츠美국무장관은 방문사흘째인 4일 張愛萍중공국방상과 돌연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군사협력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슐츠장관은 이날상오 西方지원하의 중공군현대화를 강력히 주창하고 있는 張愛萍과 약 1시간동안 만나 양국간 군사사절단 정기교류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앞서 對중공무기판매문제를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검토하겠다고 밝힌적이 있으나 이문제는 미국의 對臺灣 무기판매를 둘러싼 양국간 분규와 관련, 아직까지 실현되지않고있다.

이날 있은 양국군사관계확대가능성에 관한 발표는 美·中共관계가 지난해 8월의 공동성명발표당시보다 더욱 증진될것임을 시사하는것이다.

관측통들은 美·中共사이에 군사교류가 이루어질경우 오랫동안 손상되어온 양국간의 전략적관계가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양국고위급관리들은 5일 실무회담을 개최, 미국이 중공에 관한 군사교육·군사의학·병참분야의 협력을 확대할수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일의 실무회담에는 미국측에서 리처드·아미티지국방副次官補와 존·차우국무성군사정치국장 그리고 중공측에서 尹佐彦 국방외사국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대표단이 참석한다.

이 실무회담은 슐츠장관과 張愛萍이 이날 회담에서 군사사절단의 상호방문, 武官사이의 접촉, 정부間접촉 가능성을 논의한데 뒤이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웨덴海底서 怪物體 또발견

호르스자르덴灣…차량궤도·魚雷모양

【스톡홀름AP=聯】 지난해10월 소련국적으로보이는 잠수함이 무단침입했던 스웨덴의 호르스자르덴灣 해저에서 또다시 괴물체가 발견됐다고 스웨덴의 유력지 다겐스·니헤터가 4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스웨덴의 극비해군기지가 설치돼있는 곳에서 얼마떨어지지않은 호르스자르덴만 해저에서 차량궤도와 어뢰모양의 괴물체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스웨덴에서는 소련잠수함의 스웨덴 영해침입사건 당시의 악몽이 되살아나고있는데 문제의 해역은 지난해 10월 스웨덴 해군함정들이 해저에 숨은 잠수함을 수색작업을 벌이다 결국 실패한 곳이다.

미확인 보도들은 이번에 발견된 괴물체가 원격조종되는 소형잠수함일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어 美陸參총장 오는6월에 退任

【워싱턴羽=聯】 미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시·메이어 대장(54)이 32년간의 현역복무를 마치고 오는 6월30일 퇴역할것이라고 캐스퍼·와인버거 국방장관이 4일발표했다.

오늘 訪韓하는 슐츠 美국무장관

(얼굴)

한국경제에 관심

官·財界·學界서 크게활약

조지·슐츠美국무장관(62)은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닉슨등 4명의 대통령 아래서 재무장관을 비롯한 경제분야 각료직을 두루맡았으며 M.I.T공대에서 산업경제학박사를 받은 경제학자출신.

74년 퇴직한후 세계최대의 건설회사인 벡텔회사의 부사장으로 입사, 지난82년 6월 국무장관에 임명될당시에는 사장으로근무했다. 벡텔회사에 재직할 당시 캐스퍼·와인버거부회장(現 국방장관)과 친교를 맺은 인연으로 레이건대통령에게 소개돼 대통령후보시절 경제자문역을 맡았다.

국제경제분야와 한국의 경제발전동향에대해서도각별한 관심을 갖고있으며대학시절에는 정치에대한 관심보다는 도서관에서 연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 學究型.

57년에는 시카고경영대학원에서 교편을 잡아 62년 대학원장직에 오르기도 했다. 큰키에 부드러운 매너를 지니고 있으며 솔직하고 원만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평을 받고있다.

지난 81년2월 벡텔회사 사장자격으로 원자로 5、6호기 건설문제 협의차 한국에도 온일이 있다.

2차대전 때 해병대위로 태평양전선에 참가하여 46년 당시 군간호원이던 헬레나·오브라이언여사와 결혼, 슬하에 2남3녀를 두고있다. 담배는 안피우며 취미는 골프.

◇西歐보수파 兩頂上의 기자회견
핵미사일 배치문제를 논의하기위해 4일 英國호헌공군기지에 도착한 콜西獨수상이 대처수상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호헌공군기지(英國) 4日UPI聯=聯】

美서 新銳무기구입

싱가포르 早期경보기·미사일등

【싱가포르羽=聯】 싱가포르는 공중자위능력을 증강하기위해 미국으로부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3대를 구입하는문제를 검토하고있다고 스트레이츠·타임즈지가 4일 보도했다.

또한 싱가포르의 군사소식통들은 싱가포르가 금년말 미국에 E2C호크·아이型조기경보기구입을 발주할계획이며 이밖에 공중조기경보 레이다체제를 보완하기위해 신형미제 개량형 호크미사일과 공대지 매버릭 미사일등 고성능 미사일의 구입을 추진하고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싱가포르공군이 이 신형무기를 보유할경우 아시아지역 최신예 공군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核협상 蘇대표만나

부시, 西歐순방중

【제네바AP=聯】 서구를순방중인 부시 美부통령은 4일 제네바에서 무기협상에 임하고 있는 소련대표들을 만나 미국은 중거리核미사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매우 진지하게』바라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소련지도자들에게 전달해주도록 요청했다.

부시부통령은 이날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연설한데 이어 美대표부에서 유럽배치중거리핵미사일(INF)협상과 미·소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의 소련대표들과 개별 회담을 가졌다.

北韓서 인삼등 密輸

美세관 中國人상점서 압수

【뉴욕UPI AP=聯】 미세관관리들은 지난2일과 3일 이틀동안 뉴욕시내 중국인상점들에대한 밀수품단속을실시, 북한으로부터 불법수입된 약1백20파운드의 인삼(美貨2만5천달러)과 최음성약초등을 압수했다고세관당국이 4일밝혔다.

미세관당국은 압수된인삼들이 깡통속에 담겨있었으며 이번 단속과관련하여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밝히고 이들밀수품을 보유하고있다 적발된 중국인 상점들의 이름도공개하지않았다.

그런데 미국의 외국인재산규제법에따라 북괴상품은 재무성의 승인없이 미국내로수입이 허용되지 않고있다.

다나까 辭職권고 決議案

日社會黨·中道3派 공동제출

【東京=聯】 일본의 야당들은 사회당과 공명·민사·신자유클럽등 중도3파는 4일하오 다나까(田中角榮)前수상의 의원직 사퇴권고결의안을 공동으로 중의원에제출했다.

이들은 이 결의안에서 『청렴하고 공정한정치가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지적하고 『다나까 前수상이 징역5년의 구형을받고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처사를 용서할수 없다』고 사퇴권고결의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2주일안에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요청했다.

이에따라 야당에의한 다나까 前수상의 정치윤리추궁문제는 日本국회에서 중의원해산문제로 배수진을치고 결의안의 본회의상정처리를 피하는 자민당과 야당사이에 일대격돌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退職의원 就業제한조항削除

국회運營委 국회관계 규칙小委

국회運營委의 국회관계규칙안심사小委(위원장 李致浩의원)는 4일하오 회의를열고 사무처가 마련한 국회윤리위원회운영 규칙안을 심의한끝에 이를 대폭修正, 국회의원이 퇴직후2년이내에 有關私企業體에 就業할경우 이를 제한할수 있도록한 조항을 삭제해 유관사기업체 취업의 길을 열어놓았다.

小委는 국회운영위원장이 맡도록한 윤리위원장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의원으로하고 나머지 6명의 위원은 국회사무총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5명으로 구성토록했다.

社說

韓半島평화의 制度化

—슐츠長官 訪韓과巡訪에 바라는것

83년들어 韓半島와 그주변에는 긴장의 波高가 높아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韓半島는 1950년대같은 東西냉전이 아직 계속되고있는 세계에서 몇안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차대전이 끝난지 어언 40년이 가까와 오는데도 分斷된 南北韓간에는 東西獨에서 행해지는 通商관계같은것마저 없다. 南北간 상호 교류는 커녕 北韓은 요즘도 팀 스피리트연습과 관련시켜 準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따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을따름이다.

소련이 西歐나 페르시아만을 공격하면, 北韓은 美軍의 병력이 엷어지는 틈을 타서 南侵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은 연례(84회계연도) 국방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 마이어 美육군참모총장은 北韓이 南侵했을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核무기를 사용하게될지도 모른다고 최근 한기자회견서 말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南北韓관계와 韓半島를 둘러싼 주변강대국간의 동향이 경화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에 오는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의 한국방문을 우리는매우 중요하고 뜻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슐츠장관은 지난달말부터 일본, 중공을 방문한후 한국에 온것이다. 그가 작년여름 국무장관에 취임이래 레이건행정부의 아시아정책 再定立에 뜻을 두면서 이루어진 첫 極東4개국 순방이란 사실 또한 주목할만한 것이다.

아마도 그의 서울방문으로 年初있은 韓日, 美日, 韓美간 고위수뇌 회담과를 연결시키면서 이른바 3角安保협력체제戰略은 마무리의 끝손질을 보게될지 모른다.

韓美두나라관계는 작년 修交1백주년을 뜻깊게 승화시켜 과거 어느때보다 원활한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슐츠 訪韓이 오늘의 兩國友好관계와 그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않아 있다.

그러나 우리외교는 결코 이런 현상에 만족하는것일수는 없겠다. 살펴생각하면 풀어야할 懸案이 없는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韓美外相회담에서는 쌍무간의 문제로 한국防産品의 제3국수출과 미국의 對韓군사판매차관(FMS)증액, 그리고 全斗煥대통령이 제창한 太平洋정상회담추진문제등이 논의되리라는 관측들이다.

특히 우리는 84회계연도 美合參보고서가 지적한바, 80년이후 北韓해군력의 急伸張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해군력의 증강문제에 상당한 관심이 쏠린다. 그강화에 따른 군사판매차관증액이나 한反擊방책으로서의 우리防産品수출문제등에 美행정부가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비단 이같은 당면 현안과제뿐아니라 이번 韓美고위회담에선 보다 巨視的인 문제, 즉 韓半島의 평화를 制度的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 강구하도록 촉구해둔다.

레이건행정부의 아시아정책 再定立과제로서 韓半島 평화의 制度化 노력이 필수적인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사실 韓美, 韓日, 美日수뇌회담때마다 『韓半島의 긴장완화가 東北亞의 평화와 安定에 긴요하다』는 표현은 빠뜨려진 적이 없다.

한데 강대국에 의한 分斷이후 38년이 되는데도 이땅에서 아직 평화마저 制度化되지못한 現實은 유감스런것이 아닐수없다.

그연유는 길게 말할것 없이 北韓이 赤化統一에 사로잡혀 군사모험주의로 흐르고 南北韓간의 對話를통한 평화공존과 평화적통일노력을 거부하는데서 비롯된다. 그와 더불어 美·蘇·日·中共등 주변4大國의 利害관계가 얽혀진 국제환경상황이 그 평화의 制度化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 또한 부인할수 없을것이다.

政府는 이미 美·蘇·日·中共에 의한 南北韓 교차승인방식을 긍정시해 왔다. 하나 그 실현에는 강대국의 협조가 긴요한것인만큼 슐츠장관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적극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할일이다.

駐韓美軍의 계속주둔이나 韓美安保의 재확인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80년대의 祖國統一과 先進祖國의 창조를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는 보다 더 制度的이고 따라서 恒久性을 띠는 평화의 보장 및 증진 외교에 힘을 집중시켜야할 계제를 맞았다고 우리는 본다.

때마침 미국과 일본이 슐츠장관 極東순방을 계기로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과 교차승인문제를 협의하고있다는 일부보도가 전해졌다. 또 北京에서도 슐츠장관은 韓半島문제를 中共당국자와 논의한것으로 관측되고있다. 滯韓3일간 부디 韓半島의 實像을 잘 포착하고 항구적평화의 制度化에 적극기여해줄 것을 그에게 거듭 당부해마지 않는다.

알찬 마무리와 새出發

—내일을 祝福받는 2月開學되도록

학교교실에 어느덧 立春의 생기가 감돈다. 봄의 소리가 교정에 번질 듯, 벌써 일부에선 겨울방학을 보낸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달려오고있다. 반가운 얼굴들을 대하는 師弟와 학우들의 만남이 훈훈하고 정겹기만 하다.

내일이면 나머지 모든 초·중·고교들도 다 개학을 할참이다. 방학동안 나이테를 하나 더 늘린모습들이 한층 대견하고 의젓해보인다. 집에서 밀린 학업을 보충하거나, 찬바람을 쏘이며 뛰놀았거나, 여행을 다녀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모두가 그 나름대로 보람있는 일이었다. 방학의 즐거움은 학생만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제의 기쁨」은 이제 활활 털어 버리고, 신나는 겨울방학은 조용히 추억의 한章으로 접어 두어야하겠다. 지금은 1년간의 학업과 자기수련을 알뜰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선상에 나설 각오를 다짐해야 할 때다.

개학과 함께 오는 10일 이후면 각급학교는 졸업식으로 붐비며 학년말 시험도 바로 눈앞에 닥친다. 우리 생활은 매듭의 계속이며 연결이다. 징검다리는 차례로 밟고 뛰어 넘어야 빠질 위험이 없다.

새학년 맞이와 방학 사이에 낀 「2월개학」은 자칫하면 엄벙덤벙 보내기가 쉽다. 그렇다면 그 후회는 돌이킬수 없이 두고두고 오래 남는다. 종반의 끝맺음이 깨끗해야 새출발은 가볍고 힘이 넘칠수 있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일은 자기 책임으로 풀어가야 한다. 남이 대신해 줄수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된다. 철부지가 아닌 한 자기 몫은 스스로 해나간다는 책임감이 언제나 강해야 한다. 학습에 게으름이 없었나, 방학동안에 남의 눈을 찌푸리게한 과오는 없었나, 개학을 맞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줄 안다. 반성은 내일을 향한 도약대임을 깨달아 주기바란다.

이제부터 다시 학교생활을 주축으로 삶의 리듬을 맞춰가야한다. 방학의 공백으로 규칙생활과 절도가 흐트러졌을지도 모른다. 늦잠과 낮잠 버릇이 생겼다면 부모와 가족들이 거들어 정상을 찾게 힘써야 할 것이다. 귀여운 제자들을 바로잡도록 따뜻한 지도를 교사들에게 기대한다. [illegible]

각급학교 졸업생들의 경우도 같은 생각이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진출한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뜻한다. 이맘때면 언제나 되풀이되지만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끝마무리가 착실하면 상급학교에서나 사회에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있을수 없다. 축복 받는 새 세대는 학교생활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보내고 또 정리했느냐에 달려 있다.

새학년을 앞둔 20여일 안팎의 학교생활을 무의미한 공백으로 버려둔다면 크나 큰 불행이다.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은 새학년의 꿈을 아름답게 가꾸기위해서 하루 하루를 뜻 있게 보내주도록 간곡히 당부하고싶다. 자라나는 세대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높다. 그들은 내일의 희망이다. 이 기대를 언제나 가슴에 새겨 주길 바란다. 즐거웠던 방학은 활기찬 개학으로 이어지고 보다 성장하는 새학년으로 승화돼야 그 가치가 살아난다.

記者의 눈

西阿의 엑소더스

西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이웃 가나에 이르는 길에는 [illegible] 나이지리아에서 쫓겨난 가나출신 노동자들의 행렬이다.

나이지리아는 지난달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추방령을 내렸다. 2백만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추방령을 내렸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외국기업들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고 있으나 나이지리아가 필요로하는 기술을 갖고 合作형태로 진출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물론 이대상에서 빠졌다.

추방대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나의 노동자들도 애초에는 나이지리아가 필요로 했기때문에 불러들였다. 아프리카 최다의 1억인구를 가진 산유국 나이지리아는 70년대중엽 석유붐을 타고 흥청거렸다. 경제개발을 위해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고, 가나를 비롯한 인접국들의 빈민계층들이 떼를지어 나이지리아로 몰려들었다. [illegible]

[illegible] 【林鍾乾 外信部기자】

人事異動

經濟企劃院 [illegible]

國稅廳 [illegible]

農業振興公社 [illegible]

서울信託銀行 [illegible]

本社來訪

▲裵相稀씨 (東邦生命保險사장) 신임인사차

政局往來

◆외상회담에 局長을 서로陪席회담

[illegible]

"民權신장위해 살다간 民權黨총재 영결식에 不參하게돼 유감…"

◆常識으로 납득할 [illegible]

◆與野대표 애도속에 장례식 嚴修

[illegible]

세방EUROPE관광 안내

■8개국 여행
영국·네델란드·독일·오스트리아·이태리·모나코·프랑스·스위스。
■출발 : 6월11일 ■요금 : $2,000 ○왕복 항공료 ○숙박비(1급 호텔)
■귀환 : 6월27일 ○식사(아침·저녁)
※단 런던·파리는 아침만。
호텔세금, 팁 포함.
○관광명소 입장료
□3월말까지 선금 500불 불입 잔금 4월말까지 완납.

관광여행 업무안내
○국내·국외 항공권판매
○여권·비자 수속대행
○각종 관광여행 안내
○호텔및 렌트카 예약
○유학 수속및 상담

"2월12일(토) 오후3시부터 오픈리셉션"

세방관광여행사
SEBANG TRAVEL SERVICE LTD.
720 Spadina Ave. Suite104 TORONTO, ONT. (416)928-3335 (Res. 532-9581)

아침 한때

物價는 내리는데…

企業도 소비자도 새로운 살림知慧를

李烈模 〈本社 논설위원〉

작년중 우리나라의 도매물가등귀지수는 각각 4·9%(年末대비)와 2·4%(年間대비)란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재작년의 각각 20·4%와 11·3%의 등귀율과 비교할때에 매우 안정된것이었다. 두해 모두 年間대비보다는 年末대비지수가 더낮은 것은 등귀추세가 날이 갈수록 둔화하여 내려온것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물가추세의 安定化는 당국이 표방하는 安定化목표에 호응하듯이 물가에서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輸入상품가격의 下落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은것이었다. 수입물가지수는 80년에는 27·5%나 크게 올랐다가 81년에는 4%올랐고 작년에는 도리어 4·6%나 떨어졌다. 실제로 수입물가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한것은 81년 4월부터 였으니 이것은 우리의 물가등귀추세가 실은 81년봄부터 둔화한 사실과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81년중 수입물이 국민경제에 차지한 비중은 31·5%나 되었다. 따라서 그해중의 물가등귀율중 수입품 등귀에 연유한것은 도매물가 등귀지수 20·4%중 대충 1·26%였다는 계산을 할수 있다. 같은 계산으로 작년의 경우 수입상품비중을 29%정도로 어림잡을때에 수입상품가격등귀지수 마이너스 4·6%는 최소한 약1·2%의 도매물가 하락요인이었음하다고 짐작할수있는것이다.

필자는 이와같은 수입상품가격하락의 함축을 매우 중요시하고자한다. 그것은 지난 72년초의 수입원자재가격급등에서 비롯하고 73년 겨울의 中東戰재발을 계기로 폭등한 石油가격파동으로 절정에 이른 고물가추세가 81년 4월부터, 그러니까 실로 9년여만에 반대로 내림세로 뒤바뀐 사태전개가 획기적이기때문이다. 국민경제속에서 상품수입비중이 30%를 초과하여 무거운 우리의 경우 국내물가가 수입물가 등락여하에 크게 좌우될수밖에 없는것은 운명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고물가하의 지난 10년간 우리는 밖으로부터의 물가수난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었다. 80년중 선진국 미국의 수입상품비중은 겨우 9·3%였고 일본은 14%였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수입가격등락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적은것이다.

국제상품시장의 사태가 反轉하여 그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오늘날은 수입비중이 큰 우리의 경우 물가면으로 십자가에서 용상을 탄 처지에도 비길만큼 호전한것이다. 수입비중이 큰만큼 가격안정내지는 하락에 따른 혜택을 그만큼 후하게 받기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8·15해방이래의 만성적 인플레이션의 늪에서 과감하게 빠져나올수있는 絶好의 시기라고 믿는다.

우리 자체의 약한 경제체질에 밖으로부터의 오름세가 가세하여 터졌던 인플레가 지금은 밖으로부터의 내림세가 밀어닥치고있는 중이니 物價안정을 위해서는 잔정코 활용시키기를 맞이하였다고 본는것이다. 이 내림세에 재빨리 적응하지못하는 기업이나 소비자는 허탈치게 마련이고 낙오할수밖에 없을것이다.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불행하게도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들중 도소매업자들이 최근에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있는 사실은 물가내림세가 초래하는 손실들이의 일단을 보여주는것이다.

약한 경제체질은 경제구조에도 연유하고 소비자의 태도때문에도 초래된다. 만들기만하면 비싸게 나가고 참고에 갖다 쌓아두기만하면 값이 팔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돈벌이가 되던 오름세속에서 경제체질은 나저지기 어려웠다.

한편 수십년이래의 오름세속에 살아오면서 소비자들도 오름세심리가 체질화하여 인플레를 더욱 자극한것이 사실이다. 지난37년간 거진 예외없이 값이 오르기만하니 내일이면 값으리 더 오르기전에 빚을 내서라도 여러달동안 쓸만큼 여러해동안에 쓸것을 사두는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세가 바로 오름세심리의 실천이었고 그러대로 그런 소비자세는 개인적으로는 영리한 가계운영방법이었다. 내림세속에서 그와같은 어제의 슬기로운 가계지출 방법은 이번에는 가장 우둔하고 낭비적인것으로 反轉한다. 소비자들의 내림세심리는 내일이면 더 내리겠지하는 확신으로 당장 쓸것만 사고 구매를 실제 필요한 앞날로 미루는 방향으로 변할것이다. 이경우 남는 돈을 年利 8%의 은행예금이나 14%의 단자회사거래 또는 회사채등에 투자하면 이자가 붙어서 좋고 후일에 더 값싸게 살물건을 살수있어서좋은것이다. 어디 남는돈이 있는가고 반문하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오름세때의 多量 또는 小量초과구매를 안하는만큼 단기적으로나마 여유자금은 있을 이치다.

내림세속에서 생산자와 판매자로서는 어떻게할것인가. 무엇보다도 지난30여년간의 아니게, 부지부식간에 체질화한 오름세체질에서 과감히 벗어나야한다. 기술개발로 더 良質品을 만들고 이른바 부가가치비중이 더높은 상품을 만들어 박리다매하는길외에 기적과같은 처방은 없어보인다. 판매업자로서도 같은 방법으로 良質品만을 구입해다가 박리다매주의로 파는것으로서 한편으로는 메이커들을 正道로 가게끔 격려 견제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정직 친절로서 봉사하여야 한다. 소비자들로서는 구매결정에 앞서 이것 저것 잘 골라서 低價·良質品만을사는 알뜰하고 슬기로운 구매행동을 하면 스스로도 이로울뿐 아니라 거기서 업자들에게 내림세실천정착과 체질개선을 격려 촉구하는셈이된다. 특히 주부들의 이를 위한 공부와 노력, 이를 부축하는 소비자단체관계자들의 계도적 역할이 크게기대된다.

衣食과 취미오락문화생활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에서 오름세가 내림세로 바뀌고 사업자들의 생산·판매상의 체질이 前進的인 방향으로 뒤바뀌는다음에도 아직 남은 과제가있다. 그것은 한세대이상이나되는 긴 기간에 걸친 오름세속에서 適者生存격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투기성향의 잔재라고 할수있을것이다.

내림세속에서는 눈에띄는 사라진 상품(衣食文化用品등)투기로 그 대상이 줄어든 오늘날 투기성향의 잔재는 귀금속 부동산·투기적고리대금에로 쏠릴 이치다. 이쯤 귀금속투기는 그 바탕에 오름세심리가 깔려있고 다시 그바탕에는 일부 유한 여성들의 호화로운 裝身欲이 깔려있다. 이른바 靑年文化=新自然主義의 속성중에는 자연스러운것을 숭상하고 假飾·虛榮을 배격하는 건실한 가치관이있다. 오늘날의 젊은세대가 점차로 호화로운 裝身에 매우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은 조만간에 귀금속투기의 바탕을 상당한정도로 허물어뜨리고야 말 것임을 확신한다. 고리대금투기도 기업의 폭리풍토가 바탕이되고있기때문에 금융기관의 제기능발휘와 기업들의 박리다매주의하에서는 그 설땅을 잃게된다.

그리고도 계속 남는것이 부동산 투기다. 人口가 늘어서 土地수요가 늘고 경제가 발전하여 다시 土地수요가 늘고 소득증가에 따른 유락시장증가로 다시 土地수요가 는다.

지금 공업선진국들에서는 人口천명중 약 1백50명內外꼴로 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데 우리의경우는 이것이 대충 80명꼴이니 우리가 바라보는 先進國像은 종업원면으로 工場을 현재있는것만큼 더 지어야하니 제조업을위한 土地수요만도 대단하다. 이외에 주택·학교·도로·공원·운동장·각종 오락시설·놀토등 수요를 생각하면 실로 아찔할 지경인데 좁은 국토를 늘리는일은 거의 不可能하다. 人口증가 억제를 비롯하여 거시적으로는 부동산투기의 바탕인 토지수요증가와 공급력미흡을 한는데까지 바로잡는 노력이 크게 요구된다. 미시적으로는 투기꾼들을 단호하게 다스리는 도리밖에없다. 집값과 땅값은 도매물가는 물론 소비자물가지수에도 밖에서 뛰논다. 집세만이 소비자물가중에서 8·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이다.

제도상으로 다각적으로 부동산가격을 安定化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이것을 더욱 다듬고 또 새롭고 슬기로운 방안을 보충하여 짜임새있게 단속을 펼수밖에 없을것이다. 투기꾼들이 돈벌이하고 그통에 내집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손해본다는일만큼 안된일도없다. 大規模투기꾼들의 돈의 출처에 대하여는 많은 市民들이 의혹을 품고있다. 또 오름세심리에서 벗어나지못하여 부동산투기에 말려드는 떼한사람들도 저지않을것이다. 부동산투기의 害素는 경제적 가치의 창조(부가가치)없이 富가 투기꾼들손에 넘어가고 그통에 市民들이 그만큼 억울하게 부를 빼앗기는데에있다. 결국 우리는 지구라는 배속에서 韓半島란는 아주 좁은 空間만을 차지하게끔 운명지어지고있으니 그공간인 土地를 상대로하는 투기꾼들의 경제적 사회적 죄악은 실로 어마어마하다할 것이다.

「라이벌 攻略」亂舞

각당 全黨대회·體制改編의 안팎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정치熱氣를 불어대던 각 정당은 이제 국민당을 필두로 전당대회를 치르거나 준비중에 있고 전당대회와 때를 맞춰 저마다 體制를 개편 정비하는 작업으로 부산하다.

특히 黨職개편을 앞두고 黨마다 自薦 他薦속에 라이벌攻略전과 온갖 人事루머 매터도등이 亂舞하고 있는 실정이다.

民正 "小幅"속에 「꿍꿍이」속셈

○…民正黨의 黨職개편 폭과 대상은 지구당개편대회가 종반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五里霧中 상태. 물론 全黨대회 일자가 3월중순 이후로 잡혀있는데다 與黨이라는 독특한 입장에도 그 원인이 있다.

權翊鉉사무총장은 지난 29일 淸州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길에 처음으로 黨職개편 가능성을 밝히면서 『黨憲개정과 당기구개편은 黨의 기본골격을 흔들지않고 사무적인 불편을 해결하는 선에서 이뤄질것』이라며 『한두사람이 움직이는것은 몰라도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필요성은 없다고본다』고 말했다. 權총장의 이같은 표현을 해석해보면 全黨대회에서 黨憲과 당기구를 일부 고치고 이에 따른 小幅的인 人事만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黨內에서는 權총장의 말처럼 과연 소폭적인 人事로 끝나겠느냐에대해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있다.

民正黨의 당직개편이 黨職만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4월초로 임기가 끝나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등 國會要職과 서로 相關관계가있는데다 黨憲改正내용의 設중에는 民正黨 상층부의 명칭과 직책을 변경한다는 說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여기에 黨고위관계자가 얼마전 私席에서 이設을 뒷받침하는 발언을했다는 얘기까지 퍼져있어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民正黨은 현재 20일부터 市道지부개편대회를 치를계획을 갖고있다. 市道지부 개편대회를통해 支部위원장의 人選내용이 밝혀지면 民正黨당직과 國會職의개편내용과 폭이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市道지부대회를 全黨대회직전에 개최할가능성도 없지않다.

民韓 在野인사 迎入등 變數

○…民韓黨은 표면으로는 야당史上 初有의 「당무 無競選」이란 一絲不亂의 기운이지만 내면으로는 창당이래 최대의 「당직 競選」이란 千載萬交의 過熱기미가 일고있는 것이다. 창당이래 3번째가되는 이번당직개편이 이렇게 들썩이는데는 뭐니뭐니해도 이번당직은 오는 12代총선과 엇물려있다는 「정치實利的」측면이 우선적으로 감안될수있다.

사실 이번 당직의 경우 상층부로서는 12代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를 할수있다는 프리미엄이 있고, 하층부로서도 언제 부닥칠지 모를 解禁인사와의 자리 다툼에서 자기 영역을 확보해야한다는 절박성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당무 無競選으로 論功의 기준치가 희박해진데다 「初選 跳躍」의 기운도 일고 있다.

인사권자인 柳致松총재는 이날현재 정당대회가 끝난 20日을 전후해 早期인사를 단행할것을 강력히 示唆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개편의 幅」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문 채 新舊세력을 조화하고 位階를 지키면서 개인의 능력을 가미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人事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현당직자의 留任을 전제로한 「小幅改編論」과 일대 쇄신을 전제로한 「大幅개편론」이 엇갈리고있다. 그러면서도 ◀解禁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자세의 定立論이 강조되고 ◀12代총선을 겨냥해야할 11代 後半期라는 점 ◀전직 주요 당직자들의 向背가 부쩍 거론되는 개연적 상황만으로도 大幅說쪽으로 기울고 있다. 더구나 전당대회 準備委가 解禁인사迎入대책으로 현黨憲에 「在野정당과 統合用으로 남겨둔 부총재 (1人) 당무위원 (5人) 중앙상무위원 (20人이내)을 增員할수있도록 「단」를 在野인사의 迎入用으로 加味함으로써 人選내용도 영향을 받게될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解禁인사의 迎入환영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는 끝내 밝혀지진 않으나 앞으로 黨체재보완의 變數로 작용할것은 거의 틀림없다.

이 싯점에서 난삽한 下馬評을 정리해보면 역시 당지도부의 위치인 2명의 부총재와 국회 부의장의 人選이 이번 당직개편의 실마리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이 대목에서도 劉沃佑 李泰九부총재와 金殷夏국회부의장의 留任說과 함께 辛相佑전사무총장을 선두로 高在淸전원내총무, 吳洪錫중앙상위의장의 下馬評이 만만찮게 強勢를 보이고 있다.

국회부의장의 경우 여당측의 의장人選과 함수관계가있으나 지금까지 야당부의장을 連任한 例가 없고 黨內에서도 「돌려가면서 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은 실정.

「黨3役」을 놓고는 多選위주, 能力본위, 論功감안, 舊세력중심, 初選발탁등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을 앞세우며 亂麻처럼 얽혀있다.

이 대목 역시 柳漢烈사무총장 林鍾基원내총무 金鉉圭정책심의회의장의 유임이냐 자리바꿈說속에 무임소 3選의원인 金承穆의원과 2選의 金元基의원 初選의 孫世一의원 그리고 적잖은 의원들이 自薦·他薦속에 거론되고 있다.

現3役중 柳총장은 親政의 뜻을 충실히 해냈고 林총무는 선출된 1년을 보냈으며 金의장은 少壯의원들의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각기 強點을 지니고 있는듯. 이에반해 3選의 金의원은 창당이래 당직을 일방양보해 왔고 2選의 金의원은 재선의 선두그룹이란는 점과 지역적 감점을 안고있고 孫의원은 初選이라는 기본조건이 불리하면서도 능력을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3役경합자의 탈락등을 고려할때 「下部3役」의 競合率은 보다 치열할 전망인데 현 金文錫인권, 梁在淸훈련, 朴炳一당기위원장은 한단계 「跳躍」을한든 「양보」를 하든 일대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중진으로의 關門」인 당무위원의 자리다툼은 불꽃이 뛰고 있다. 수용가능한 당무위원수는 현재 3석의 빈자리와 院外가 양보할경우 최대 5席정도가 된다.

그러나 물망에오르는 의원은 2選의 趙重衍 劉浴根의원을 중심으로 申在休재정위원장, 金珍培대변인, 당료출신의 高炳鉉 徐錫宰의원, 전국구 7번의 孫泰坤의원, 議政활동이 활발했던 李英駿 鈴鎬相 金在映의원등 1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대변인의 경우 許景九 金文元 徐淸源의원이 3派戰을 벌이고있는데 徐의원은 현역 부대변인, 金의원은 黨報국장, 許의원은 당내 제1의 이론가로서 모두 만만치가 않다.

동시에 初選으로서 단한차례 주요당직을 맡아보지 못했던 高泳壽 李興鎔 申鎭洙 洪思德 韓光玉 李炯培 李官炯 金永俊 閔炳禔의원들중에서도 발탁의 기회가 주어질것으로 보인다.

국민 "公平"내걸었지만 3巴戰

○…5일年頭회견에서 金鍾哲총재는 『適材適所에 알맞는 인물기용』『天下의 公黨으로서 公平한 人事』『결코 상식을 벗어나지않는 人事』등 수사적인 원칙론만 얘기했으나 의욕대로 다이었다는게 黨內분위기.

우선 2명의 부총재에는 李萬燮, 尹錫民현부총재의 留任說과함께 전당대회 의장자리를 내놓은 李鍾贊의원이 擧論되고있는데 이중1人은 黨고문으로 추대될가능성도 없지않다는 얘기.

현재까지의 下馬評을 정리해보면 人選의 가장 큰 관심은 黨3役. 現任者들의 留任說속에 총무엔 再選의 金鍾河의원, 사무총장에는 趙炳鳳의원, 金永光의원이 바싹 추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와는 별도로 李聖秀의원도 李萬燮부총재를 제외하고는 慶北師團의 유일한 再選이라는 점을 내세워 3役의 지역均配를 주장하면서 대시, 目下 三巴戰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3役중 가장 人氣度가 낮은 정책위의장자리는 누군가가 「내자리」라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나 대충 사무총장자리 競選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에서 채워지리란는것이 지배적인 관측.

사무총장의 경우 金총재의 측근인 趙炳鳳의원 起用說속에 「場外變數」도 예측되나 金총재의 한 측근은 『이번 사람은 黨內外 눈치보며 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해 더욱 아리송.

이런 몇가지요인을 감안, 趙의원이 사무총장이되면 金永光 李聖秀의원중에서 政策委議長이 나오리라는 분석도있다.

이와는 별개로 가장큰 관심사였던 총무자리는 李東鎭총무의 留任說과 李萬燮부총재측이 밀고있다는 金鍾河의원이 浮上하고 있다.

대변인자리 역시 눈에보이지않게 조용한 角逐. 당초 본인말처럼 湖南唯一의 지역구출신에다 民正黨후보를 밀어내고 金메달리스트를 내세우며 『湖南지역을 대표해서라도 3役에 들어가야겠다』던 李成一대변인이 殘留의사를 밝힘에따라 여기서도 3~4파전의 양상.

주로 初選의원을 사이에서 또 다음선거에서 지역구출마자리를 노크하고있는데 전국구출신으로는 金翰官·姜棋弼의원이, 지역구출신으로는 林德圭·金完泰의원이 짙은관심을 표명하고있어 注目. 【政治部】

週末攻局

메아리

合意

작년말 예산국회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다. 질문자는 趙舜衡의원이다.

『최근 방한한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가 우리 原電의 안전조치 미흡을 지적했다는데 사실인가』.

압축된 신문기사 그대로라,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李正五 科技處장관은 미국인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요원이 40명뿐이라 했으나 韓電에만도 요원이 40명, 그 밖에 7백50명의 요원이 있다고 대답했다 (11월4일자 한국일보 3면).

기사는 이 것뿐이다. 국회에서도 더 이상의 논의가 있었던것 같지 않다. 국력을 기울이다 시피하여 原電건설을 추진중인 나라 치고는 소홀한 느낌이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들 스스로의 무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볼수밖에 없다(82년12월18일字本欄「3兆원싸움」).

다만 앞서의 국회 문답은 미국인 전문가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에 대하여 뭔가를 지적한 것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李장관의 답변은 그 지적사항에 대한 異議인셈이다.

그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가 궁금하던 참인데, 제 아침 한국일보가 그 「原典」이라 생각되는 문서를 特稿보도했다. 미국인 섈러먼·레비씨의 현지조사 보고서다. 자료입수에 꽤나 애를 먹은 모양이라, 보고서에 대한 우리측의 보안이 철저했음을 알것같다.

그런데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미국의 두 잡지가 그 보고서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두잡지의 대변인 기자회견을 갖고 기사내용을 부연한 것, 金추 국무장관의 방한을 바로 앞두고 보도가 있었던것 등을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는 않다.

이에 대하여 動資部와 韓電은 우리 원자력발전소에 『결함은 절대없다』고 발표했다. 82년의 레비報告書가 인용되고 있다. 양측 보도와 발표가 한가지 보고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셈이다.

여하간 우리로서는 정부발표대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함을 믿는다. 신문에 실린 82년도의 레비報告書도 그렇게 읽을 수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보고서는 귀담아 들어두는게 옳다.

무엇보다도 보고서는 80년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안전을 위한 한국정부의 「認識」과 「投資」를 촉구하고 있다. 남의 지적이야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라해도 이 대목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만에하나 그 지적이 옳다면 加一層의 원자력 안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겠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원자력 안전 諮問委의 구성을 권고하고 있다.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참여가 있어야 원자력 규제가 온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 개발이 중요한만큼 「民」의 참여가 있어야겠다는 뜻에서 나온 권고라고 생각된다.

아닌게 아니라 「民」이 참여하는 원자력 규제는 원자력개발의 상식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경우는 종래의 원자력위원회를 해체하여 원자력研究開發院(ERDA)과 원자력規制위원회(NRC)로 분리하고, 안전규제 업무를 NRC전담으로 독립시키고있다. NRC에는 원자력安全許可회의를 따로 두어 공청회개최를 허가의 필수요건으로 한다.

영국은 動力部가 전담하던 업무를 쪼개 안전규제는 健康安全위원회에 맡겼다. 우리나라에 원자로를 수출한 캐나다도 원자력公社에, 원자력管理위원회와는 별도의 安全諮問위원회를 둔다.

이들 보다는 뒤졌지만, 일본은 지난79년 원자력 安全局을 신설 함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안전심사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總理대신이 원자력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는 것도 원자력行政간담회란는 總理諮問기관을 따로 설치하고 있다.

이런 장치들은 衆智를 모아 원자력의 萬全을 期하자는 것이지만, 원자력은 국민적인 合意를 얻어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의 나타남이다. 그것은 반드시 反核운동에 밀려서 라기보다, 원자력개발이 원자력「大事」이기 때문이다.

외국이 그렇다고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원자력개발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숨기듯 하는 원자력 행정은 이제 지양해 마땅하다. 「쉬쉬」만 해서는 원자력 개발에 대한 국민적인 合意를 얻을 수가없고, 앞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때에가서, 난처한 사태를 부를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적인 合意를 얻는길은 「절대 안전하다」는 일방적이고 斷言的인 弘報로 이루어지는 것이아니라, 公開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임을 지적하고싶다. 레비報告書가 지적한 남북의 事案들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만한 것들이다.

국민들도 원자력의 효용과 안전, 그위험에 대하여 알고 있도록해야한다. 그것이 원자력을 왜 개발해야 하는지를 인식시키고 그 안전성의 신뢰를 심는 길이다. 지금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원자력 홍보가 있어야 할 계제인 것이다.

金昌悅 〈編輯委員〉

공동성명서

한인 양로원건립위원회와 토론토 크리스챤노년아파트 건립위원회는 각각 노인아파트와 양로원건립을 목적으로 일을 추진해 오던중 그 목적이 동일한 한인사회의 필수사업임을 늦게나마 서로 인지하여 대화를 통한 통합의 길을 모색해왔읍니다.

특히 본 사업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한인사회 전체에 기여한다는 순수한 사명감으로 하나의 기치아래 힘을 모아 본 사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그동안 두 단체간의 부단한 대화와 한인회 특히 한인사회의 뜻있는 분들의 조언으로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데 대하여 감사하며 앞으로 두 단체간의 결점을 서로 보완하고 장점과 중지를 한데모아 본래의 목적달성에 박차를 가하여 기필코 한인사회 전체에 봉사할 수 있는 양로원및 노년아파트를 건립할 것을 다시한번 천명하면서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83년 2월 7일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 위원장 천 중 환

토론토크리스챤노년아파트건립위원회 대표 조 병 선

健康

人體의 總司令塔·神이 만든 컴퓨터— 그 神秘의 베일을 벗긴다

한국일보
특집판

紙面안내
8면‖現代史현장 ⑭…東京서 깃발 올렸던 「2·8독립운동」

腦의 기능

人間을 人間답게 통제

뇌는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뇌의 기능은 아직 신비에 싸여 있지만 과학자들은 신비를 풀기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의 기억, 감정, 사고등의 고등기능이 뇌세포의 화학물질과 전기력의 상호작용일 뿐이라는데 의아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뇌의 신비는 전기력과 화학물질의 작용으로 어느정도 설명될 수 있다。신경세포가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신경세포는 이 자극을 일종의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다른신경세포에 전달하게 된다。이때 전기신호는 두 신경세포가 서로 접합되는 부분인 시냅스에서 화학물질인 신경자극전달물질로 바뀌었다가 이것이 다시 다른 신경세포의 전기신호를 유발시킨다는 것。

과학자들은 뇌의 각종기능을 분업화시켜 뇌에 하나의 지도를 그렸다。대뇌의 피질은 의식·언격·운동·시각·청각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은 각각 뇌의 특정부위와 깊은 관계에 있다고 본다。예를 들면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언어를 통괄하는 부분은 왼쪽대뇌반구에 있다는것등이다。뇌간은 인간의 원시적인 기능인 성욕과 식욕을 관장하는 생명중추이며 간뇌는 본능과 관련된 부분으로 알려져있고 소뇌는 운동하는데 협조작용을 한다。

대뇌의 특정부위가 어떤 기능과 관계가 있는가는 최근 시도된 양전자에 의한 단층촬영 (PET) 으로 더욱 확실해지고있으며 PET로 기억·감정·사고에 대한 작동경위가 밝혀지고있다。

기억은 뇌의 기능중 가장고도의기능이다。모든 기억은 외부의자극에의한것。외부의시각적형상이 전기자극형태로 신경세포에전달되어 기억으로 남게되는데 이과정은 1분도 안되는 짧은시간에 이루어진다。전기적인 자극은 시냅스의 신경자극전달물질에 저장되는데 시냅스의 모양에 따라 기억기간이 달라진다는것。그러나 전기적인 자극으로충분히 저장되기전에 이물질이 방출되면 먼젓번 자극은 기억되지않는다。일반적으로 전기적인 기억은 7개의 수를 넘지 못한다。

두연인 사이의 사랑의 감정이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라면 많은사람들은 믿고싶지 않을것이다。그러나 뇌의 감정발현은 화학물질의작용에의해 일어나는것으로 밝혀졌다。아직 그 작용기전은 확실히 규명되지않았지만 감정의 종류에 따른 뇌의작용부위가 밝혀졌고 그 속에서 화학물질을 찾아냈다。

精神·物質 미묘한연결

인간의 사고나 상상, 미래에 대한 설계등의 인지능력도 전기력과 화학물질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믿어진다。뇌속에 기억회로가 있는 것처럼 사고의 회로도 있다는 것。인식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대뇌의 복합피질부위와 감각기능을 맡지않은 모든 피질부위。인식기능부위를 다친 사람은 기억은 할수있으나 앞날을 계획할수는 없다。이점은 PET촬영으로 쉽게증명된다。

여기에서 인간의 정신과 물질과의 미묘한 관계에 부닥친다。과학자들은 기억·감정·사고등을 실리콘칩의 전기력과 햄버거의 단백질과 같은 평범한 화학물질에 적용시키고있다。이제 삶 그자체는 생화학적인 반응일뿐이다。

戀人들의 애틋한 사랑도 化學물질의 작용이다

자극→신경세포→化學작용·電氣신호로…記憶·思考·감정 回路달라

◇뇌혈관 조영술로 찍어낸 뇌의 사진들。

당신의 腦는 건강 합니까

『당신의 뇌(腦)는 건강합니까』

인간의 뇌는 인체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총사령탑。뇌는 조그만 이상이 생겨도 커다란 불행을 초래하게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심장이나 다른 장기는 타인의 것을 이식하거나 인공장기로 바꿀수 있지만 뇌는 이식할 수도, 재생되지도 않는다。또다른 장기는 살아있어도 뇌가 죽으면 사망판정을 내리는 死活의 지표가 되는 기관이다。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온갖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 오염된 환경으로 뇌의 건강에 부담을 느낀다。정신질환이 급증하는것도 이 때문이다。이런 속에서 뇌를살릴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건강한 뇌만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할수 있다。

千億개 細胞연결…移植도 再生도 못해

派生질환 많아 평소 健康관리 신경을

뇌의 질병은 크게 정신병·뇌종양·뇌염·뇌혈관질환등으로 나눌수있다。노이로제등 경미한 증상도 엄밀히 따지면 뇌의 이상에서 오는 질병이다。따라서 뇌에 관계되는 질병은 수없이 많다。서울대의대신경과 李尙馥교수는『뇌의 이상에서 오는 신경과 질환 환자는 전체환자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만큼뇌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크게 증가하고있는 셈。이중에서도 특히 뇌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사망률에서 3위안에 들어 있다。

인구보건연구소가 80년도 사망자25만2천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의 10·7%가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했으며 뇌졸중의원인이 되는 고혈압에의한 사망률은 11·4%나 되었다。

뇌졸중(腦卒中)은 뇌출혈과 뇌경색에 의한 것으로 나눌수있는데 뇌출혈이 훨씬 많다。뇌졸중의 원인은 고혈압과동맥경화증이 주원인이며 당뇨병·비만증등 성인병도 뇌졸중을일으킬수있다。

또 짜게 먹는 식생활도 커다란요인이라고 李尙馥교수는 지적했다。

이밖에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지만 연탄가스중독에 의한 뇌의 산소결핍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의 뇌는 하루평균 1백44g의 포도당과 72ℓ의 산소를 소모하여 30W전구 하나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생산해 낸다。그러나 연탄가스중독으로 5분간만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으면 즉각 사망하거나 살아나더라도 식물인간이 되고만다는 것。

이밖에 최근들어 스테로이드제제등 항생제의 남용으로 곰팡이에 의한 뇌막염이 증가추세에 있고 뇌종양도 전체 종양의 10%에 이른다고 李尙馥교수는 말했다。

뇌는 인체의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이다。외부의 모든 자극을 조절해내는 감각중추。또 정보의 처리와 종족보존·생체보존은 물론,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감정의 변화를 지령하며 지능과 창조력을 기르는 「신비의 기관」이다。뇌의 신비스런 작용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뇌의 평균무게는 1천2백50~1천3백g정도。이 안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는 밤하늘을 수놓는 은하수의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다。대략 1천억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이러한 신경세포는 다시 재생시킬수가 없고 보충시킬 수도 없다。신경세포가 이렇게 많은것도 새로운 세포로 대체될수 없다는 사정 때문이다。

인간의 뇌세포는 하루에 2만~5만개가 죽어가고있다。그러나 인간이 일생을 사는동안 많이 써보아야 전체의 20분의1정도인 40억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뇌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따라서 뇌는 단단한 두개골로 감싸여있다。뇌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뇌를 보호하는데 신경을 쓰지않으면 안된다。

또 뇌는 바꿀 수가 없다。인간개체의 생명의 독자성을 유지해주고 존재의 유일성을 지켜주는 기관이기때문이다。심장이나 다른 기관은 다른사람의 장기를 이식하거나 인공기관을 사용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뇌는일단 기능이 정지되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얼마전 金得九선수가불행한 죽음을 당했을때도 腦死로 사망판정을 내렸다。그만큼 뇌의 중요성을 입증한 것이라 하겠다。

최신 의학의 발달로 뇌의신비는 하나씩 밝혀져가고있다。또 컴퓨터단층촬영기(CT)나 핵자기공명장치(NMR), 또는 양전자에 의한 단층촬영기(PET)의 도입으로 뇌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혁명을 가져왔다。李尙馥교수는『인간의 고등기관인 뇌의 기능이 분자생물학적으로 해명되어가며 살아있는 뇌의 구조를 자세하게 찍어내 질환의 위치와 종류등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게됐다』고 지적했다。

컴퓨터 단층촬영기에 의한 분석은 뇌질환의 위치·종류·질병 부위의 크기·진행상황등을 자세히 관찰할수 있어 뇌질환의치료에 혁신을 가져왔다。뇌질환중 수위를 차지하고있는 뇌혈관질환의 진단도 뇌혈관조영술의 도입으로 훨씬 수월해졌다。뇌혈관조영술은 뇌혈관에 조영제를 주사하여 뇌혈관의 상황을 정확하게 추적한다。따라서 뇌혈관질환을 조기에 알아내 빨리 손을쓸수 있게됐다。

그러나 뇌혈관질환은 급작스럽게 닥쳐오는 병이므로 평소에 식생활이나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李교수는 말했다。

과학자들은 뇌의 신비를 풀어내기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신비를 풀어줄 화학물질들이 속속 밝혀지고있다。두 신경세포의 연결면에서 생기는 간격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시냅스는 우리의 뇌속에 10조개가 들어있다。이 시냅스에서 생기는 화학물질을 신경자극전달물질이라고 한다。이물질이 신경세포간의 「통신역할」을 하면서 뇌의 신비스런 기능을 일으킨다는것。지금까지 약 10개정도의 후보생이 알려져있다。이러한 신경자극전달물질의 발견은 기억·감정·사고등 사람의 고등인격의 기능을 화학적인 작용으로 풀어낼수있게했다。이와 더불어 유전병으로 알려진 파킨손씨병을 약물요법으로치료할수있게됐으며 정신병도 그발병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내 약물로 치료할수있는길이 열리게될것이라고 李교수는 전망했다。

뇌가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은 다시 강조할필요가없다。과격한 운동을할때 뇌를 보호하기위해서 적절한 보호장비를 써워야한다。특히 권투선수의경우 뇌손상을 방지할 대책의 마련은 시급하다 하겠다。약물의사용도 뇌에는 치명적이다。약물에 중독되면 뇌의 정상적인 신경자극 전달물질에 이상이 생겨 영원히 치료 할 수 없게된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쓸수록 더욱발전한다。李교수는『계속 새로운 문제에 부닥쳐 그 문제를 해결해갈 때 신경세포에 새로운 회로가 형성되어 새로운 사고·연상·창조적인능력이 생겨된다』고 분석했다。따라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만이 뇌의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金周彦기자】

수술은 어렵지만 危險性거의 없어

수술가운데 뇌(腦) 수술 만큼 어려운것이없다。뇌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않은 부분이 많다。심지어 뇌의 형태와 구조, 기능면에서 명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는 부분마저 있다。

延世大의대 신경외과장 李揆彰교수는『그러나 뇌수술은 지난 10년간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많은사람들이 뇌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면 목숨을 포기한것으로 생각했다。그래서 아예 수술을 포기하는일이 흔했다。

李교수는 10년전 이같은 「생각은 환자나 그의 가족을 나무랄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뇌수술결과가 만족할정도로 좋지않았다는것。그러나 최근 현미경을 이용하는 미세수술과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와 뇌혈관조영촬영 같은 진단술에서 수술을 안전하게할수 있게하는 호흡과 심장박동, 혈압, 체온등을 관리하고 각종 수술보조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뇌수술은 이제 위와장의 수술만큼이나 보편화되었다고 했다。李교수는 이때문에 최근엔 뇌수술을 하고 생명을 잃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정도가 되었다고 했다。

실제로 이는 최근의 통계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주요 대학부속병원의 경우 뇌수술 사망률은 2%수준에 와있다。李교수는 연세대의대부속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뇌수술 사망률은 79년 6·4%에서 80년 4·1%, 81년3·2%, 82년 2·0%로 매해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뇌수술을 하게되는 3대요인으로 ▲외상(대략 전체의 25%)과 ▲뇌종양(″13%)그리고 ▲뇌혈관질환(″11%)이 꼽힌다。이중 외상으로 뇌수술을 하게되는 경우는 교통사고에의한것이 가장많아 70%를 점하고 있고 다음이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20%)그리고 놀이등 부주의로 해서 오는 어린이사고(10%)가 차지하고있다。

李교수는 외상을 ①뇌출혈 ②이물질이 뇌에 박힌다든지 뇌좌상(腦挫傷) ③외부힘에 의한 뇌간(腦幹)과 같은 뇌의 중심부가 손상을입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다고 했다。지난번 金得九선수의 돌연한 사망은 ③의경우에 해당한다고。

中心部아니면 치료가능

腦종양도 뿌리까지도려내 根治

李박사는 외상에의한 뇌손상은 뇌의 중심부가 크게 다치지 않는 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그러나 증세가 심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심한 뇌출혈과 뇌외상은 컴퓨터단층촬영장치등을 이용, 정확히 진단해 낼수 있다。하지만 수술결과는 임상증상이 예후판단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했다。좀더 설명해서 눈동자가 빛에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않으면서 동공(瞳孔)이 늘어나있고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멎어있다든지 심장의 고동이 거의 멎어있는상태이면 수술해도 좋은결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했다。그러나 이같이 위중한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수술이 가능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있다고。

뇌종양은 얼마전까지만해도 우선은 생명을 좀 연장해보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때문에 수술은 종양의 큰 덩어리만을 떼내는게 고작이었다。그러나 요즘은 양성과 악성(癌)을 가릴것없이 종양의 뿌리까지 도려내는 근치수술을 하고있다。수술전은 말할것 없고 수술중에도 종양의 크기와 위치, 윤곽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데다 이를 현미경을 이용하는 미세수술로 종양을 깡그리 오려낼수 있게된 때문이다。또 수술이 불가능한 아주 미세한 조직은 초음파나 레이저광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태워 없앨수 있게 되었다는것이다。따라서 요즘의 뇌종양 수술은 병소(病巢)를 1백% 제거하는데 목표를 두고있다고。따라서 뇌종양수술은 뇌의 중심부(腦幹)까지 종양의 뿌리가 뻗어있지 않는한 근치수술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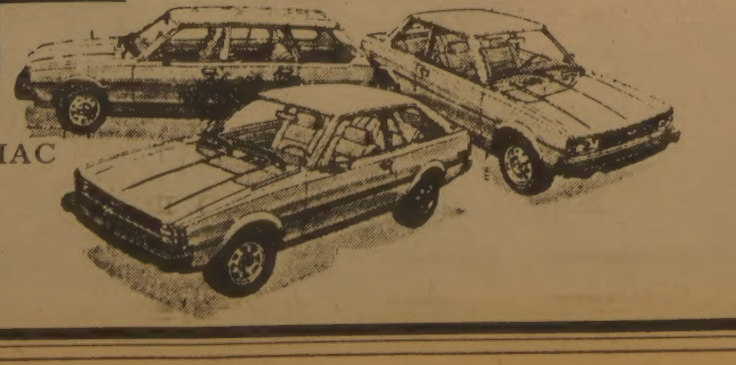
뇌에 혹이 생기는 일은 종양말고도 기생충이 원인이 되는 수가 있다。돼지고기를 날로먹을때 걸릴수 있는 유구낭종(有鉤囊腫)이 그중의 하나。유구낭종은 얼마전까지 제주도의 풍토병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요즘은 전국에걸쳐 뇌에 낭종이 발견되고있어 주목된다고 했다。유구낭종은 대부분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그러나 이경우도 낭종이 뇌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면 치료가어렵다。

뇌종양 가운데 뇌하수체종양이 있을것이있다。뇌하수체종양이 있으면 시력이 이유없이 떨어지거나 두통과 경련등 뇌증상이 나타난다。또 여자는 월경이 멎고 젖이 흘러 나온다。남자는 임포가되고 역시 젖이 흘러나온다。이같은 뇌하수체종양은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1백%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뇌혈전의 경우엔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기전 위험상태를 알아 내는 일이 중요하다。일단 완전히 뇌혈관이 막히고 나면 주위의 뇌세포가 죽고 말아 후에 어떤 조치를 해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李교수는 뇌혈전증은 뇌혈관조영술로 사전에 정확히 알아 낼수 있다고 했다。따라서 뇌혈전 전구증상으로 꼽히는 ▲입이 돌아간다 ▲어지럼증이 종종 인다 ▲팔과 다리 또는 얼굴이 일시적인마비증세가 인다 ▲순간적인 언어장애가 있다든지 하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李光秉기자】

가장 싼이자!
12.9% G.M.A.C. 이자율
2월 말까지



◇각종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Grant Brown
1575 WESTON RD.
WESTON, ONT
☎ : 247—7161
이 한 구

한국일보 (특집판)

連載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現代史의 現場 ⑭

題字 原谷 金基昇

2·8獨立운동

抗日로 뭉친 첫 民族물결

東京유학생 중심「血戰선언」 歷史뒤안길에 묻혀 命脈만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겨우내라고해도 한 두어번 정도 오다가 그치는 눈발이 東京이다.

그러나 1919년 2월8일의 東京은 大雪로 市內의 교통이 거의 마비될지경이었다. 그렇것이 2월들어서 계속내리던눈이 채녹기도전에 이날 아침부턴 다시 눈이 내려 쌓였기때문이다. 30년만의 큰 눈이라고했다.

바로이날 敵陣의 심장부 東京복판에서 우리의 혈기찬 젊은유학생들은 民族自存의 기치를 높이 쳐들고 日帝에 대한 永遠한血戰을 선포했으니 그것이 「2·8독립운동」이다. 64년전의 일이다.

2·8독립운동은 곧 거의 한달후로 이어지는 3·1독립운동의 烽火였으며 導火線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독립운동사에 커다란 劃을 긋는다. 그러나 이역사적인 이벤트는 3·1독립운동이라는 金字塔에 가려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으며 이젠 그 殘影조차 스러져가고있다.

『2·8독립운동이라구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운동이 있었나요?』

東京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한在日동포2세는 기자의 지나가는투의질문에 오히려 설명을 求한는 정색의 反問調다.

역사의 현장이었던 在日한국YMCA회관도 당시의 흔적을머금기에는 너무나 변했다。現地番이 東京都 千代田區 猿樂町2-5-5인 YMCA회관은 예전엔 神田區西小川町 2-5였다.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得한 世界萬國의 前에 독립을 期成하기를 선언한다』는 외침으로 우렁찼던 당시건물은 1923년 關東대지진으로 燒失돼 다른건물이 들어섰다가 2년전엔 9층짜리 현대식빌딩으로 아예 變身, 옛적의내음이란 맡을길이 없다.

더구나 64년전의 그날이가까운 2월하고도 며칠이지났지만 당시를 회상케해주는것은 건물현관입구 후미진곳에 덩그라니서있는 기념비하나뿐. 별도 회관안 어느곳에도 2·8을 일깨워주는 설명이나 안내문은 없다.

在日화가 李鳳煥씨 (47·多摩미술대학조교수)의 작품인 대리석 기념비엔 「朝鮮獨立宣言 一九一九·二·八記念碑」라고만 陰刻되어있을뿐이다.

『이기념비도 사실은 작년에 2·8독립운동63주년을맞아 세워진것입니다. 그전엔 이렇다할 기념비도 없었고…. 해마다 거르지않고해왔는데 在日민단청년회와 학생회, 청년상공회, 在日YMCA등 4단체에서 모금운동을 펴 비로소 기념비다운 기념비가 세워진 셈입니다』

YMCA의 디렉터(Director)南宮成一씨는 2·8독립운동이 그史的인 가치에비해 너무 忽待를 받고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이 젊은 史學徒임을 전제한 그는 2·8운동이 갖는 史的評價는 물론이러니와 이를 입체적으로 고찰, 集大成한 논문이 하나 제대로 나와있지않는것이 현실이라고개탄한다.

따라서 2·8독립운동의全貌는 지금도 밝혀지지않는부분이 많으며 기록마다 각각 다르다.

기자도 이를 취재하면서 서로 다른기록, 相異한 관계인사들의 증언때문에 困惑스러웠던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2·8독립운동은 한마디로 定義할만큼 그리 「가벼운 이벤트」가 아니었기때문이다.

이때 東京에는 「朝鮮基督教青年會」「朝鮮留學生學友會」「朝鮮學會」「朝鮮女子親睦會」등 갖가지 애국단체가 있었는데 모두 학생을 중심으로한 조직체로서 집회는 YMCA회관을 주로 사용했다. 기록에 의하면 학생들이 東京에 오면 먼저 YMCA에 들렀었고 80%이상이 처음 1년간은 이곳에서 일본말을배우고나갔다는것이다.

학생단체가운데 특히 朝鮮留學生學友會는 1912년 10월에 조직된 단체로서 조선인학생은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회원이되게돼있으며 만일 會에 나오지않을 경우 國賊으로 몰아부칠정도로 排日정신이 강한 조직이었다.

1918년 靑山學院의 영문과에 재학중인 尹昌錫은, 『Japan advertiser』紙 12월1일자를 우연히보게된다. 거기에는 『미국에 있는 조선인대표 李承晩·閔瓚鎬·鄭翰景등 3인이 독립을 갈망하는 민족의 염원과 日帝의 허위 선전, 容認할수없는 침략행위를 세계에 알리기위해 파리平和會議에 간다』는 보도가 나와있었던것이다. 그로부터 2주일후 이번에는 『東京朝日新聞』12월15일자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자금으로 30만엔을 모금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유학생들은 이에 자극을 받아 「學友會」를 중심으로 비밀회의를 거듭, 이듬해인 1919년1월6일 웅변대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YMCA회관에 모여 민족자결주의원칙에 의해 조선의 독립을 일본내각과 각국大·公使에게 청원할것을결의했다. 또한 실행위원으로 崔八鏞·宋繼白(早稻田大) 田榮澤·徐椿(東京高師) 金度演(慶應大) 白寬洙(正則英語學院) 尹昌錫(靑山學院) 李琮根(東洋大) 金尙德·崔謹愚등 10명을 선출했다. 그후 田榮澤이 病으로 사임하고 새로 李光洙(早稻田大)와 金喆壽(東京帝大)를추가, 11명이됐다.

이들이 주로 모의한 작전본부(?)는 白寬洙의 하숙집으로 정확한地番은 알길이 없으나 早稻田戶塚町。戶塚町은 新宿과 早稻田사이。

2·8前夜 白寬洙의하숙에선 마지막 작전회의가 열린다. 그날의 회합에선 1차거사계획에대한 최종점검과 2차거사계획이 숙의되었다. 따라서 재궐기를 주동했던 卞熙鎔, 崔承萬, 張仁煥, 崔在宇, 姜宗秀등 5인과 崔元淳, 張泳奎등 모두 7인이 모였다. 이 회합에 참석했던 인사중 유일한 생존자인 崔承萬옹(87세·서울龍山區梨泰院1동18-1의36)은 그날밤 숙의 분위기를 이렇게 떠올린다.

『白寬洙의 하숙집은 일본인이 비교적 드문거리였다. 밤이니 주위가 더욱 고요했다. 모의가 무르익은 밤11시쯤 갑자기 저벅저벅한 발소리가 들리었다. 모두들 말을 뚝 끊고 문밖에 온신경을 쏟았다. 형사나 그 끄나불한테 발각될줄 알았다. 잠시후 여자목소리가 들리었다. 白寬洙가 밖으로 나갔다. 얼마뒤 白寬洙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모두들 달려들듯이 무슨일이 나고 물었다. 白寬洙는 「주인여자다」라고 말했다.

이 여주인은 「자기는 여자라 관심도없고 또한 말도 몰라 무슨얘기를하는지 모르겠으나 당신네 젊은이들이 밤늦게 얘기하는것을보고 시장할것같아 밤참을 준비해갖고왔다」고 했다는것이다. 모두들 휴우하고 긴장을 풀었다』

2·8독립선언문은 독립선언서 결의문 민족대회 소집청원서등 3부로돼 나누어진다. 이가운데 독립선언서 결의문은 YMCA에서 빈 등사판으로 國文·日本文 각6백부를 인쇄했으며 영문은 타이프로 찍었다. 그리고 日本文의 민족대회 소집청원서는 崔八鏞이 당시 芝區小山町3의 伊藤인쇄소에서 1천부를 인쇄했다.

崔八鏞과 伊藤인쇄소주인 伊藤柳太郎과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었는가가 확실치않지만 당시 「反亂罪」에 해당하는 청원서를인쇄해준 일본인 伊藤은 우리근대사에 있어서 한번쯤은 음미해볼만한 인물이다.

한번쯤은 경찰에 끌려가서 곤욕을 치렀을 伊藤은 戰前에 사망, 2·8에관한한 수수께끼를 남겼다.

2·8독립운동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독립선언서를 누가 만들었는가 한는점이다. 史學者 申奭鎬씨 (작고)는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에서 『누가 기초했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대개 李光洙가 지은듯하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崔承萬옹은 李光洙가 起草하고 白寬洙가 추고를 했다고 말하고있다. 일본에서 「在日한국기독교청년회(YMCA)75年史」를 집필중인 吳允台목사 (74·哲博·在日대한기독교東京교회)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껏 밝혀진 바로는 초안은 白寬洙가 대개 기초를 하고 정정및 전체의文章정리는 李光洙가 한것이 틀림없다』고 지적, 李光洙의 작품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崔承萬옹과 吳목사는 李光洙의2·8독립선언서와 崔南善의 3·1독립선언서는 문장의 도도한 흐름이나 내용에 있어서 우리민족문학의걸작이라고 말하고 어느면에선 두독립선언서가 무척 대조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2·8은 일본에대한 영원한 血戰을 선포한반면 3·1은 人本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두선언서에서 「청춘의 맥박」과 「노인의 지혜」를 한꺼번에 엿보는것같다고지적한다.

2월8일의 역사적인 집회는 하오3시정각 YMCA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상오중에 독립선언문은 각국대사관 일본정부요인 衆議院 貴族院 신문사등에모두 우송되었다.

會場인 1층강당은 눈때문에 시내교통이 거의 마비지경이었으나 이미 입추의 여지없이 꽉들어차 있었다. 이때 모인 남녀학생수에 대해 3백명 4백명 또는 6백명이라고 기록마다 다르나 일치된 견해는 당시 東京에 있던 유학생들이 거의 다 모였다는 것이다.

회의는 회장인 白南奎의개회선언에이어 尹昌錫이등장, 기도를 올렸고, 白寬洙의 독립선언서낭독, 金度演의 결의문낭독이있었다. 지금까지 사태의 추이를 모르고있었던 사복형사들은 비로소 눈치를 채고 해산을명했으나 흥분한 학생들과충돌, 일제검거가 시작된다. 이때가하오3시5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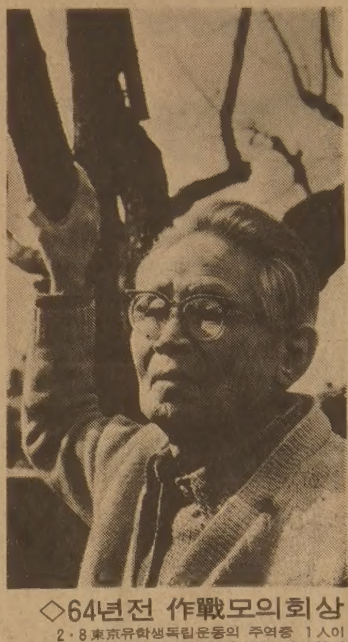
『경찰들은 학생들이 구두를 신을 틈도주지않고 1자(尺) 이상이나 쌓인 눈길을 경찰서까지 2백m이상을 질질끌며 연행해갔다』

이때 잡혀간 27명은 실행위원10명 (李光洙는 1월30일 神戶에서 중국으로떠나므로 면)을포함 27명인데 실행위원들은 모두1년이상의 刑을 선고받았다.

2·8선언에뒤이어 2월24일에는 卞熙鎔, 崔承萬, 張仁煥, 崔在宇, 姜宗秀등이日比谷공원에서 재궐기, 靑年독립단민족대회소집취지서를 남독하고 다시 抗日의기세를 올렸다.

吳允台목사는 2·8독립운동의 의의에 대해 『우리민족이 갖는 문제를 가지고 각계각층이 일어섰던 有史以來처음』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吳목사는 이같은 관점에서 현재 국내의 독립기념관건립문제도 시급한 과제지만 3·1운동의 發源地였던 東京에도 독립기념관이 있어야겠다고 강조, 날이갈수록 퇴색돼가는 2·8독립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해야한다고 역설한다.

【東京에서 丁熹기자】



◇64년전 作戰모의회상
2·8東京유학생독립운동의 주역중 1人이었던 崔承萬옹。64년전 2·8前夜 白寬洙의 하숙방에서 심야「작전모의」를 가졌던 일을 회상한다.

◇東京한국YMCA앞 현관옆에 서있는 2·8독립선언기념비. 오른쪽은 YMCA디렉터 南宮成一씨。왼쪽은 丁熹기자。【東京支社=佐野기자찍음】

3·1運動의 起爆劑

民族自決주의思潮에 主體的 대처

趙東杰 <國民大교수·韓國史>

2·8宣言은 구한말및1910년대의 민족항쟁과 같은 독립운동상의 源流意識과 1918년 1차대전이 끝나고 전후의 처리로서 국제사회가 개편되던 것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민족적 분위기, 특히 美洲·上海·滿洲·露領등지의 망명 동포의 노력의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1918년의 쌀폭동으로 야만적 행각을 自畵像으로 드러내며동요하던때에 東京에서 학생단체 (朝鮮靑年獨立團) 에의해서 단행되었다는 점에서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2·8독립선언의 양상과 내용에 대하여는 앞에서 소개되었을 터이니 그의 意義만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먼저 2·8선언은 그때까지의 독립운동의 의지를 집약하여 日帝의 통치하가 된 1910년 이후에는 처음으로 民族的 咆門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나라가망한뒤에 獨立志士들은 국내외에서 갖은 방법을 다하며 국권을 회복하려고 애써왔다.

그 노력의 역량을 모아 東京留學生의 입으로 민족적 咆門을 연 것이다.

물론 그전에도 獨立軍이나 국내의 각종단체에의해서 민족의 의지가 표현된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15년의 大韓光復會나 獨立義軍府처럼 그때까지의 단체들은 민족의 總力을 대변 했다기보다는 특수조직의 처지에서 부분적 한정에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 2·8 선언은 비록 학생단체에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족의이름으로 일제에 대한것이었고, 또 온겨레의 주목을 받은 보다 강력한생명력을 가진것이었다.

이러한 생명력이 성립될수 있는 기반은 물론 1910년대에도 꾸준히 쌓아올린독립운동의 공적에 있으나 한편, 그당시로서의 여건도 중요한 것이다。즉 1차대전이 끝나고 국제적 개편작업이있었고 더구나 개편의원칙이민족자결주의에 있던 당시 였고, 또 국내 에서는 太皇帝(高宗) 의 독살설로 민족감정이 격앙된 당시 였으므로 2·8선언은 즉각 민족적주목을 받을수 있었다.

바로 그점을 주체적으로이용했다는 점에 두번째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당시 일제의 경찰은 민족자결주의에 자극되었다고 他律的 성격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뒤집어 말한 것이다. 戰後의국제상황을 보고만 있었다면그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경우처럼 주체적 능력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국제상황을 주체적으로 이용한것이 타율적이란 말인가. 민족자결주의가 한국에 해당되고의 여부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특히 1905년 美日秘密協定과 같은 국제상황을알지도 못하고 넘어간 어리석었던 역사를 반성하면서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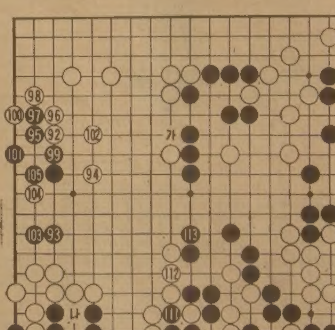
그와같이 국내외상황을 수용하여 민족적 포문을 연2·8선언이었기 때문에 3·1운동을 先導했다는 위치에서 세번째의 意義가 있다. 흔히 이야기하는대로 3·1운동의 推進點火劑로서의 형상적 의미도 큰것이었지만,2·8선언의 이념이 3·1운동의정신으로 이어졌다는 이념의맥락에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910년대만해도 봉건이념이 근대이념과 병존해있었다. 그런데 2·8선언에서 민족의 명의로 자유주의 국가건설을 포고함으로써 復辟主義的 봉건이념를 차단하고 봉쇄할수 있는 3·1운동으로 이어갈수 있었던것이다. 물론 근대이념은 3·1운동의 대중화과정을통하여 민족적으로 정착할수 있었지만, 그의 先導的 역할은 2·8선언에서 수행되었다고 봐야한다。이러한근대이념이 2·8선언에서 한동의 무리없이 수용되었던것은 그들이 신청년의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즉, 당시의 학생은 민족적知性의 대변자였다。기성세대가 잃은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찾아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의식과 새로찾는 나라는 근자유주의국가여야 한다는근대적 지성으로서의 민족지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이념이 그대로 표현된 2·8선언이 되었으며 그 학생들의 전위적 활동에 의해서 3·1운동을 혁명으로 발전시켜갔던 것이다.

이와같은 학생의 민족지성의 대변자, 또는 독립운동의 전위적 역할의 수행자로서의 위치에서 일제하 학생운동의 기틀과 전통이 마련되었다. 근대적학생운동은 구한말부터 산발적으로 일어났는데, 1910년대의 민족교육에 의하여 학생의 민족적 역량이 성장하면서 2·8선언과 3·1운동의 전위적 활동을 통하여 학생계층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계층적 운동으로서 192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2·8선언으로 학생운동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점에서네번째의意義가있다. 이상과 같은 2·8선언은 한국인의 자유를위한 투쟁이 적 규모의 출발점이었다는 말로 묶을수 있으니 이것은 한국근대사 발전의 작업의 일단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제14기 名人战 挑战者决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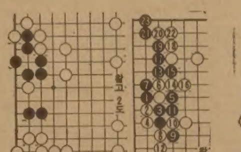
第9局 第6譜 92~113 (각5시간·덤5집반)
白 (4段) 李相澈〈1勝1敗〉
黑 (6段) 張秀英〈2勝0敗〉



白92의 삿점에서 대세를 크게 만회하고 다시 黑이 뛰어나가야할 자리인 白94를 두게된 李4단은 역전의 찬스마저 잡는가 싶었다. 그런데 白96이 호사다마격인 패착이었다. 여기서는 좌우간 참고1도의 白2로 젖혀 이하 黑23까지 후수로 黑을 귀살이시켜 주었어야 白승이 결정적이었다. 이 기회를 놓치고 黑105까지 곱게 살게 해서는 행운을 스스로 쫓아버린 격이다. 李4단은 그제야 아차했으나 엎지른 물。大魚를 놓친 안타까움으로 또다시 조급한 수를 두어 버렸다. 여러 기사의 국후평을 하나로 묶어보면 白

白軍、勝機놓쳐

106은 우선 113을 선수하고 白「가」로 막아 형편을 관망해야 白도 장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 원래 좌하귀는 白「나」로 째어 참고2도처럼 黑1에 白2、4한는 노림수가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실전처럼 白106、黑107로 되었어도 아직 수가 남아 있었는데 黑111、113으로써 해소되어 버렸다。그까닭은 다음보에서─。【一凡】



참고1도 참고2도

張吉山 <1659>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19)

『언제나 이름잊지말고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만 합니다. 용화세계를 생각하면서 늘 염송하면 병고와 업이 사라지고 미륵님과 언제나 함께있을수가 있지요. 따라서 염송하시오. 나모현거도솔미륵존불(南無現居兜率彌勒尊佛) 나모당래교주미륵존불(南無當來教主彌勒尊佛) 나모삼회도인미륵존불(南無三會度人彌勒尊佛).』

좌중에서 그의목소리에 뒤이어 염송하는소리가 일어났다.

『아프고 괴로울적마다 마음을 지켜 외우시오』

여환은 다시 몇번을되풀이하였고 좌중에서는 외고 또 외었다. 이미 관솔불은 다 꺼져버렸고 새벽의 냉기가 써늘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떴으며, 묘옥과 아낙네들은 남은자리를정리하고 설겆이도 하느라고 다시 분주하였다. 혜음령식구들과 양주사람들은 한데어울려 이경순의 사랑에몰려들어가 앉았다. 장쇠와 전생이는 묘옥을 돕느라고 방안에 들어앉을 틈이 없었다. 여천댁은 울었는지 두눈이 충혈되었고 눈두덩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환희가 말하였다.

『아주머니 인제 굿이나 법회에는 따라다니지 마시우. 그러시다가는 아예 장님 되시겠수』

『왜, 이렇게 한바탕 울구나야 가슴이 후련해지지. 포한이 맺힌채로 그냥 품고있어두 죄가 되는게여』

『맞습니다』

여환스님이 연천댁 편을들었다. 중길이가 말하였다.

『스님, 저희 식구 인사받으십시오』

그는 영길이에게 눈짓하였고, 엉거주춤하고있던 영길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굳몽이를 처들고 어색하게 큰절을 올렸다. 여환은 공손하게 마주 합장하였고, 중길이가 소개하였다.

『이번에 한양서 새루 왔읍지요. 저희들께 시킬 일이 있으시거나 한양에 통기할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면됩니다』

『여환이라 하오』

『영길이라구 합니다』

환희가 중얼거렸다.

『그 참, 잘되었군。 자네 제 식구들은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도성 출입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경순이 말하였다.

『오늘 스님 설법을 듣고 보니 문산포에서두 향도가 많이 나오게 생겼읍니다』

『처음에 잠깐 도가 든다 할지라도 꾸준히 닦아 주지 않으면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대개 몸이 아픈이들은 병고침려구 일부러워 하다보면 신실해지기는 하든데』

계화가 의견을 말하였고, 환희가 말하였다.

『이 사람도 도를 깨친 것은 얼마 안됩니다。그래두 포청서는 이른난 점쟁이였지요。지금은 미륵도의 보살 구실 한노라구 사방으로 다니며 시주도 받고 법회도 열고 합니다。이 대에도 여문이 엄마같은 훌륭한 보살이 계신데 무슨 염려할게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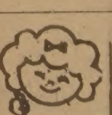
이경순은 많이 얻은데, 계화와 연천댁이 맞장구를 쳤다.

『아무렴, 신통력이 뭐 별것인가. 신령이 그만한데 섬귀께서 내버려 두실리가 있나』

『보살이지, 아 그만하면대를 잡아도 족하지』

여환도 말하였다.

『오는 칠석에는 칠성암에서 크게 재를 올릴 모양이니 두양부 모두 문산포사람들 데리구 오셔야지요』



533－2361

SPECIAL SALE
특별할인
TELEFUNKEN
BRAUN
아카데미 T.V. STEREO
EAST MORNINGSID MALL
255 MORNINGSIDE AV. SCAR.
KINGSTON RD. & MORNINGSIDE
☎ 282-2820
WEST FINCHWEST MALL
346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 745-5555

우리學校 최고야

——멋없는 劃一設計벗어나 현대造型美 살려

內部 밝고 명랑… 계단식 敎室도

◇획일화된 형태와 단순한 색깔의 건물양식에서 탈피, 개성과 아담한 멋을 자랑하는 신설학교들. (위로부터 空港高·鹽室高·面牧高건물)

아담하고 개성이있는 학교건물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건물」이라면 대개가 一字型에, 우중충한 회색, 획일적인 건축양식으로 단조롭고 몰개성한 인상을 주어온게 사실.

그러나 교복, 두발자율화에 발맞추기나하듯 학교건물도 세련된 현대식조형미를 살리기시작했고 도색도 다채로와지고있다.

지난해부터 서울에서 모습을드러내기 시작한 이들새학교 건물들은 겉모습만 개성미가 다양화된게 아니라 내부도 기존학교건물보다 실용성도 뛰어나다. 그러니 학생들의 머리속에 『우리학교 최고』란 인상이 깊어질수밖에없다.

자부심를 갖기시작한 학생들이 많아지고있다는 소문도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지금까지 세워진 중고교가운데서 서울의 梨花여고 中央고교등 오랜전통을가진 사립학교들은 개성미넘친 건축물로 아직도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있다.

특히 각급 공립학교들은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한개의 교실이라도 더짓기위해 문교부가 내려준 표준설계도에따라 개성미나 멋은 찾을수없게 지어져왔다.

이런 「싸구려건물남발」에 대한 반성은 88올림픽을 대비한 「아름다운 서울가꾸기」운동과 함께 생겨났다.

서울시교위는 작년부터 새로짓는 학교들은 一字型이 아닌 ㄴ ㄷ ㅁ 등으로 건물형태를 다양하게하고 페인트칠도 조화있게할것을 권장하고있다.

신축학교의 개성미넘친 모습은 올봄 새학기에 개교하는 空港高 鹽室高 面牧高 石串高등 4개 공립고교에서 나타나고있다.

서울江西區傍花洞541 空港高건물은 연구기관같은 아담한 분위기를 풍긴다.

정문을 지나 대하는 본관현관은 육중한 직육면체기둥이 웅장함을 드러낸다. 현관은 3층높이의 「1층 슬라브오픈형」으로 양면이 유리로돼있고 현관슬라브는 3층복도로 돌출해 L자형으로 뻗은 복도를 환하게 해주고있다. 건물 형태도 현재는 ㄴ형이지만 오는 84년 완공되면 ㄷ자형으로돼 안뜰을낀 아담한 건축물이된다. 창문양식도 1, 2층과 3층이 서로 달라 한결 다양함을 보여준다. 외벽도 4개의 섬유형 계단과 1, 2층 벽은 베이지색타일을 붙이고 3층벽은 백색 특수도장으로 은은한 조화를 이루고있다.

개교준비에 한창바쁜 崔在漢교장(55)은 『空港高의 건축양식은 학교건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이는것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보기 어려운것』이라며 자랑이 대단하다.

서울江東區新川洞17의1 아파트단지에 들어선 鹽室高의 건물도 재래의 학교건물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새로운 충격을 안겨준다. 창문양식과 외벽이 3층까지 같다가 4층에선 창문형태가 바뀌면서 베란다형으로 돌출, 잘지은 대학의 건물같다. 또 서실과 특별교실등으로 활용될 4층의 창문은 빛이 최대한 들어오게 설계돼있고 1

외부 塗色도 다채로와

아담하고 個性的 "예뻐서 마음에들어요"

층에 자리잡은 시청각교실은 바닥이 층계식으로 돼있다. 외벽은 1·2·3층과 건물 양쪽모서리가 주황색의 오지벽돌로 마무리됐고 4층벽은 흰색으로 칠해져 주위아파트 단지와 조화를 이루고있다. 내부의 복도와 벽도 회칠이 아닌 색깔을 넣은 특수도장으로 건물내부가 명랑하고 밝은 분위기를 풍긴다.

서울東大門區面牧洞산30 面牧高의 건물도 완공되면 ㅁ형의 본관건물에 관리동이 터널식으로 연결되게되는데 외벽은 건물의 3분의2는 주황색오지벽돌로, 3분의1은 베이지색도장으로 돼 한결 산뜻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城北區石串洞88의2 石串高의 건물도 ㅁ형으로 외벽을 변색벽돌로 처리했고 현관에서 중앙정원을 잇는 통로는 「1층오픈형」으로 연결돼 외부에서보면 건물안에 또 혹은정원이 있는것같은 느낌을준다.

이들 4개공립고교 외에도 堂山西中, 陵洞국교등 올봄 개교하는 학교들도 각기다른 건축양식과 색깔로 학교마다의 개성을 살리고있다. 시교위는 지난해초부터 각기다른 설계도를 이용, 학교를 지어왔다. 외양뿐만 아니라 화장실, 수도시설, 조명시설, 쓰레기수거시설등도 학생들의 교내생활이 편리하도록 시공했다.

이같은 건물형태의 다양화는 좋은면적을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교지확보가 어려운 대도시에선 앞으로 더욱 권장되고 발전되어야할 것이다.

具本錫 교육감은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건물은 가급적이면 실용적인 기능외에 학교마다의 개성과 미적감각을 살려 세월이 흘러도 명물로 남아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方政俊기자】

택시運轉士 2만5천여명

"社納金 30억 환불하라"

2百14개社상대 집단訟事

서울시내회사택시운전사2만5천여명이 30억원의 사납금환불을 요구하는 무더기소송을 낸다.

서울시 택시노조협의회는 5일 지난80년5월부터 81년5월까지 서울시내 2백14개 택시회사들이 기름값 택시기본료인상을 이유로 운전사들로부터 서울시가 직권조정한 사납금액수보다 하루평균 택시1대당 1천~2천5백원씩 더 거둬들인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3백여명의 위임장을 받아 申五澈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했고 나머지 운전사들로부터도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추가의뢰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노조측은 운전사들이 되찾아야할 부당사납금은 1인당 평균12만원으로 모두 3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운전사들이 이같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것은 지난10월 대법원이 꼭같은 문제를놓고 13만8천4백64원의 환불을 회사측에 요구한 國際운수소속 운전사 金龍守씨(29·서울道峰區水踰洞50의64)에게 『서울시의 직권조정액은 그기간 사납금의 상한선으로 보아야하며 노사협의등을 통해 그내용을 임의로 변경할수없다』고 판시, 1·2심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데 힘입은것.

노조측은 이승소판결이 내려진후 서울시 택시조합연합회를 통해 대법원판결로 시비가 가려졌으니 대상운전사에게 초과징수한 사납금을되돌려주도록 요청했으나 회사측이 『회사와 개인간의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환불할수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이나오자 소송을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의뢰받은 申변호사는 이들의소송이 사항은같지만 회사를상대로한 개별적인 민사소송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海外취업詐欺 6백64件

지난해 2千3百명 12억원被害

지난한해동안 6백64건의 해외취업사기사건이 발생, 해외진출희망자 2천3백여명이 12억1천여만원을 사취당한것으로 집계됐다.

5일 노동부에 의하면 지난1년동안 6백64건의 해외취업사기사건이 발생, 이중 6백29건의 관련사기범을 검거해 2백29명은 구속, 88명은 불구속입건했고 나머지는 계속 조사중이다.

한국서 新種淋菌 발견

美空軍군의관 파견調査

抗生劑에 강해 難治

【아틀랜타(美조지아州)聯】 현재의 성병치료약으로는 좀처럼 치유가되지않는 새로운 유형의 임질이 최근 한국에 있는 미공군기지에서 발견됐다고 美조지아州 아틀랜타에있는 방역센터가 3일 발표했다.

방역센터는 이 신종임질의 증상이 생식기점막에 염증이 생기는등 보통의 임질과같으나 스펙티노마이신과 페니실린등 일반적으로 널리쓰이는 항생물질에 저항, 치료가 되지않았다고 밝혔다.

방역센터는 美공군의무관들이 이 신종임질이 미국으로 파급될 것을우려, 새임질의 발병의 진상을 조사하기위해 한국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82년중 이같이 항생제에 저항하는 박테리아가 한국이외에서 나타난것이 약20건됐으나 모두 다른 성병치료 과정에서 빚어진 합병증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졌다.

82년이전에는 이같은 저항성 박테리아가 나타난것이 전세계에서2건에불과했다.

최근 한국에서 나타난 27건의 경우는 성행위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自由服입고…中·高校 개학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전국의 중·고교가 5일 일제히 개학했다.

교복자율화가 전면 실시되는 새학기에 앞서 많은 학교들이 개학과 동시에 자유복착용을 허용, 학생들은 간편하고 개성적인 차림으로 등교했다.

고등학교는 오는 11일, 중학교는 16일에 각각 졸업식을 갖고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는 봄방학이다.

原色校服 제조금지

商工部, 업계에당부

상공부는 중고생들의 교복자율화에 대비, 원색제품이나 지나치게 현란한 제품은 제조치못하도록 5일 봉제품생산업계에 시달했다.

상공부는 이 지시에서 교복의 경우 값싸고 실용적이어야한다고 전제하고 디자인이나 색상은 학생신분에 맞추어 선택토록할것을 당부했다.

조합장 選擧타락

후보2명拘束

【大邱】경북도경은 5일 경북慶山郡 南川面 농협단위조합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千奎祥씨(46)와 낙선한 金相權씨(50)를 배임 증재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이단위조합장인 千씨는 3년임기가끝남에따라 지난1월19일 실시된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을 대표하는 50명의 총회대의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전형위원을 뽑아달라고 부탁하며 金씨등13명의 총회대의원들에게 5만원~20만원씩모두 1백5만원의 현금을 주었고 낙선한 金모씨도 같은방법으로 13명의 총회대의원들에게 5만원~50만원씩 모두 1백94만5천원을 준혐의이다.

경찰은 이선거에서 千씨가 2천만원, 金씨가 1천만원의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잡고 50명의 총회대의원전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펴고있다. 【聯】

戰警이 強盜로 돌변

行人때리고 시계등 金品뺏아…拘束

서울龍山경찰서는 5일 龍山경찰서 이태원파출소 방범대원소속 전경대원 柳一洙상경(20)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柳상경은 지난1일 새벽2시30분께 서울龍山區漢南洞 주택가 골목길에서 徐元錫씨(36·花木물산 직원·서울龍山區漢南洞72의2-1)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차 실신시킨뒤 徐씨가 끼고있던 백금반지 1개와 스위스제 전자손목시계 1개등 30여만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났었다.

柳상경은 이날 휴식시간을 이용, 근무지를 이탈해 漢南洞 해장국집에서 맥주2병을 마시다 해장국집에들어온 徐씨를 만나 『집이 어디냐』고 물어 徐씨가 『면허시험장근처』라고 대답하자 『집까지 모셔주겠다』며 동행, 徐씨집 못미쳐 골목길에서 범행을했다.

범행후 柳상경은 근무지로 태연히 돌아와 빼앗은금품을 물탱크속에 숨겨두었다가 신고를받은 경찰이 수사를펴자 붙잡혔다.

柳상경은 경찰에서 『생일날이라 근무지를떠나 혼자술을 마시고있는데 徐씨가 『전경대원이 왜정복을입고 술을 마시느냐』고 시비를걸어 徐씨를 때렸다』고 말했다.

柳상경에게 주먹과 발길로 얻어맞아 얼굴과 허리등에타박상을 입은 徐씨는 어릴때부터 왼쪽다리를 다쳐몸이성치못하다.

日에毒感창궐 流入가능성

"예방에 萬全을"

保社部 전국에指示

보사부는 5일 인플루엔자의 국내발생을 막기위해 보건계몽·방역활동을 철저히하는 한편 환자로 의심될경우 가검물을 채취, 즉시 국립보건원에 보내도록 전국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의 이같은조치는 최근 日本에서 어린이로부터 교생까지 환자가 5만여명에 이르는데다 5백20개 각급학교가 휴교또는 학급별로 수업을 중단하는등 인플루엔자가 크게번져 日本지역의 여행자를통해 국내에 유행될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고장난 蘇인공위성

한국에 안떨어진다

과학기술처 인공위성 대책반은 5일 고장난 소련의 핵추진첩보위성 코스모스 1402호의 마지막원자로 부분의 추락은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을것이라고 밝혔다.

故金義澤총재

社會葬 엄수

故金義澤 民權黨총재의 社會葬영결식이 5일상오 明洞성당 문화회관에서 각계인사 6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故人의 유해는 영결식이끝난뒤 仁寺洞 民權黨舍를거쳐 南楊州郡瓦阜面栗石里 가족묘지에 안장됐다.

이날 영결식에앞서 명동성당에서 고인(金요셉)을 위한 영결미사가 있었다.

15일이내 칸막이撤去해야

理美容師法 개정규칙 어제發效

보사부는 퇴폐이발행위를 단속하기위해 개정한 이미용사법시행규칙을 5일자로 고시했다.

이에의하면 모든이용업소는 앞으로 15일이내에 칸막이등 차단시설을 철거해야 하는데 퇴폐행위가 적발되면 1차로 2~3개월, 2차엔 4~6개월, 3차적발되면 6~10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처분기간동안 영업을계속할경우 면허를 취소할수있게했다.

大學에내는 기부금에

세금減免협의

문교부는 5일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기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대학에 기부금을 낼경우 세금을 감면해줄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문교부는 지금까지 개인이나 법인(기업)이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내려해도 세제상의 혜택이없거나 기부금중에서도 상당액수가 세금으로 징수당해 학교에 큰혜택을주지못하고 있다고보고 현행세법을 개정, 기부금을 적극유치시키기로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얼굴」이 닮았다

白磁·靑磁에 평생을 건 韓益煥씨

作品 보스턴박물관 永久소장돼

6순陶工의 얼굴이 질박한 항아리를 닮았다. 14년째 李朝白磁와 高麗靑磁에 미쳐있는 韓益煥씨(62·사진·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장)의 얼굴은 「단려한 한국여인」으로 비유되는 白磁의 線과달리 사뭇 남성적이지만 그 형태와 바탕은 「白色에의 耽溺」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경기龍仁郡外四面高安里산골에있는 자신의 가마 益窯에서 1년에한번, 그것도 7개가마 가운데 마음에 꼭드는 하나에만 장작을지펴 靑磁·白磁를 정성껏 구워낸다는 그는 최근 필생의 목표이던 白磁와 靑磁를 제대로 재현해냈다는 기분에 들떠있다. 한달 20여일씩 불을 때면서 예선조들과 「흙과 釉의대화」를 통해 정통의경지에 오르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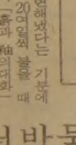
白磁는 백토나 차돌처럼 단순한 돌을 가루내어 섭씨 7백도~9백도의 가마에서 초벌구이한뒤 몸통에 다시 유약을 바르고 섭씨 1천3백도이상으로 가열해 만들어내는데 유약이 녹아흘러 주저앉는 그 순간이야말로 오묘한 순백빛깔에 절로 황홀해지곤 한다. 1년농사를 거둬들이는 심경이 얼마나 흐뭇한 까마는 다년간의 수련끝에 勞作을 얻어내는 그의기분은 차라리「감동」이다.

그가 白磁에 신들린것은 釉藥과 바탕의 연구에서 비롯됐다. 滿洲間島의 공업학교 광산과출신으로 전국의 도자기 공장을 돌며 실험실근무를 하다 고미술에 손을대게 됐고 그이후 陶工이 됐다.

부산의 도자기연구소에서 일할때는 좋은흙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高麗靑磁의 파편을 찾아내면 짜개고 이리저리 분석하면서 釉藥과 바탕의 신비를 나름대로 풀어오곤 했다.

그래서 지난달25~30일에는 세번째 전시회를열었고 지난80년 한국미술 5천년도미술회전때는 靑·白磁향로3점을 보냈는데 그중 1점이 보스턴박물관에 朝鮮朝도자기 40여점 李仲燮화백의그림 1점과함께 영구소장될정도가 됐다.

유명인사의 도예전과 揚名을노린 예술이 범람하는 시대에 그처럼 도자기전승에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일일 것이다. 해방이듬해 淸津에서 월남한 그는 白磁에다 헤어진 부모의 그리움도함께 새기는 모양인데 미술 평론가 李慶成씨의 말대로 「형태감의 완성보다 완벽한 백색에의 도달」이 그가 추구해야할 과제이다. 【薛熙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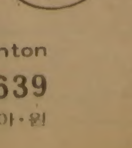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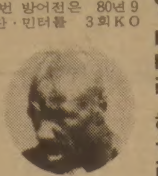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실비아·윈

미들級 統合챔피언 대머리 해글러 12일 6次방어전

WBC 1位 십슨과



프로복싱 WBA·WBC 미들급 통합챔피언 마빈·해글러가 12일상오 (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웨체스터에서 토니·십슨 (영국)과 타이틀 6차방어전을 벌인다.

대머리 鐵拳 해글러는 자신의 나이가 30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마추어시절 두살을 보탰기 때문에 현재 28세의 한창때라고 주장, 타이틀방어를 장담했다.

해글러의 이번 방어전은 80년 9월 영국의 알란·민터를 3회KO로 누이고 타이틀을 딴 이래 6번째로 12일 대전의 입장권 1만 3천5백여장은 매진됐다.

도전자십슨은 WBC동급 랭킹1위인데 해글러가 타이틀을 방어하게 되면 WBA가 지명한 프랭크·플레처의 도전을 받아 방어전을갖게된다.

십슨은 레프트·훅이 강한 파이터로서 47승 (27KO) 1무3패의 전적을 갖고 있으며 81년에는 민터를 3회 KO로 이긴바 있다. 반면 55승 (46KO) 2무2패의 해글러는 76년 9월 윌리·몬로를 10회판정으로 이긴후 연속 30게임 무패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웨체스터AP=聯合】

禹恩京 難破코오롱 救出

26초前 東邦바구니에 逆轉골 57-56

여자實業농구

太平洋化學이 8強의 결승토너먼트에 먼저 올랐다. 5일 文化체육관에서 진행된 제5회전국여자실업농구연맹전 이틀째D조에서 太平洋化學은 장신파워를살려 신예信用保證基金을 87-53으로 제압, 2연승을 기록, D조수위로 결선에 올라갔다.

치열한 공방을벌인 C조코오롱과 東邦生命대전서는 코오롱이 26초를남기고 禹恩京의 슛으로 57-56으로 극적인 역전승을거두고 1승1패가 되었다.

B조에서 外換銀行은 羅仁淑·洪貞美의 슛과 方信實의 재치있는 게임운영으로 朝興銀行을 55-49로 격파, 1승1패를 마크했다.

◇제2일전적

▲B조 외환은행 55 (27-25 28-24) 49 조흥은행 (1승1패) (1승1패)

▲C조 코오롱 57 (38-30 19-26) 56 동방생명 (1승1패) (1승1패)

▲D조 태평양 87 (42-23 45-30) 53 기보금증 (2승) (1패)

▲A조 국민은행 67 (37-30 30-29) 59 상업은행 (1승) (1승1패)

陸上聯 常任이사진

▲부회장=徐潤福 (경기·심판·선수강화·마라톤담당) 金昌根 (기술지도·용기구시설담당) 陳壽鶴 (신인발굴) 兪賢濬 (국제·기획담당) 金鍾錫 (상벌) ▲전무=崔鶴來 ▲경기=韓泰奉 ▲심판=金榮泰 ▲기술지도=南宗憲 ▲선수강화=徐永珠 ▲용기구시설=金容德 ▲마라톤강화=李相鐵 ▲신인발굴=梁在聖

어머니排球심판 등장

大邱 裵蓮子씨 線審맡아

전국규모배구대회에 처음으로 여자심판이 등장, 눈길을끌었다. 83신춘KBS고교배구라이벌전이틀째槿映-松源女高, 仁荷附高-文一高경기서 裵蓮子씨 (39·대구시서구성서2동147의2) 가 라인선심을맡아 성실하고 정확한 판정으로 박수를 받았다.

지난해 7월 고급심판자격을따낸 裵씨는 大邱어머니동우회 회장직도 맡고있는데이번대회에 출전한 慶北師大附高팀을 응원하기위해 상경했다가 코트에 나서게된것。

蘇·泰A팀 1、2位 泰청소년 축구

【방콕=聯合】蘇聯과 泰國A팀은 4일 방콕국립경기장에서 속개된 泰國국제청소년 축구대회 예선 A조경기에서 각기 말레이지아와 中共을 2-1、4-1로 물리치고 A조예선전적 1、2위를 고수했다.

한국의 豫選두게임 濠주심 배정않기로

【방콕=聯合】제1회 태국국제청소년 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4일 한국對폴란드전때 한국선수2명에게 퇴장명령을 내려 말썽을 빚었던 濠州주심 토니·보스코비치씨를 한국팀의 남은 두차례의 예선전에 배정치않기로 했다.

犯行후엔 모두죽여

戀人들 납치해 섹스환상 즐겨

섹스의환상을 즐기기 위해 젊은 연인들을 납치,강간·살해한 제럴드·갈레고 (36)·샬린·갈레고 (26) 부부에 대한 재판이 지난주부터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이들은 지난 80년11월 새크라멘토주립대학생 크레이그·밀러군과 그의 약혼녀 메리·베스·사워스양등 두남녀를 외딴곳으로 납치, 남자를 쏘아죽이고 여자를강간한 후역시살해한혐의。【外紙】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디스코 추며 제스처도 익히고…

프로野球심판은 고달프다

스포츠話題

◇프로야구 심판원 (82년계약자)

순회심판	金玉經	金東郞	金光哲	吳光昭	黃錫重	朴四奉	李撰錫	白大三	李日龍
나이	44	36	35	39	36	46	36	36	33
경력	15	10	9	7	8	5	5	3	3

주재심판	朴玟奎	金贊翼	禹成濟	南昌熙	朴明勳	吳春三
나이	46	34	36	44	34	41
경력	12	12	10	8	6	2

프로야구의 열기로 이제 야구심판도 안방극장 TV의 CF(상업광고) 모델로 등장하게 되었다。

프로야구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심판은 해볼만한 직업인가。

82년 3월28일 프로야구 개막전을 주재했던 프로심판 金光哲씨는 『국내에 15명뿐인 직업심판』이라는 자부심으로 산다고말한다。

심판은 외롭고 고달프다。언제나 양팀의 중간지점에 서있을수밖에 없는것이 심판의 숙명이다。한팀이 판정에 만족하면 또 한팀은 불만을 터뜨린다。

『개막전 주심으로 내정된후 이틀밤을 꼬박세웠읍니다。긴장과 흥분으로 잠을 이룰수가 없었지요』

첫게임을 마친 심판들은 그날밤으로 釜山行 열차에 몸을 실었다。목은 부어오르고 팔다리는 물부은 솜처럼 늘어졌다。머리속만은 이튿날 치러내야할 롯데-해태의 라이벌전 생각으로 어지러웠다。

『그라운드에 서있는동안 눈이 쭉쭉 꺼져들어가는기분이었어요』

심판에게는 선수나 감독 코치 못지않은 체력관리와 연구가 필요하다。82년 첫 시즌을 앞두고 6개프로팀들이 동계훈련에 열을 올리는동안 심판들도 저마다 머리와 몸을 닦고 조이기에 분주했다。

더러는 고교팀훈련에, 더러는 대학팀훈련에 참여, 체력을 다지고 실전에서쓸 제스처와 룰연구에 몰두했다。

처음 착용하게 된 인사이드·프로텍터는 특히 무거운 과제였다。옛날 같은 스타일의 제스처를 쓸수없기 때문이었다。

새 제스처연구에 고심하는 K심판에게 과거 심판경력이 있던 선배한사람이 조언했다。

『심판의 제스처도 強·弱을 살려 리듬미컬해야한다』

K심판은 그날이후 며칠밤을 디스코, 나이트 클럽에서 보냈다。제스처는 정확하게, 또 유연하게 몸에 익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었다。

이렇게 준비한 새무기를 들고 82년3월부터 10월까지 심판들은 釜山·光州·仁川·春川으로 숨가쁘게 줄달음쳤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첫해에 확보한 프로심판은 모두 15명。전국각지를 순회할 순회심판 3개조에 3명씩, 지방주재심판에 6명이었다。이들중 A급심판3명은 70만원, B급 3명은 60만원, C급 3명은 50만원, 주재심판은 3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아마시절 부업처럼 심판직을맡았던 이들은 프로로 옮긴후 대부분 다른수입원을 포기해 생활은 크게 달라진것이 없다고 말한다。

금년 KBO가편성한 심판진은 지방주재없이 3개조 5명씩으로 15명。그러나 지난해 활동했던 심판들중 3명은 심판사고에대한 징계로, 2명은 건강때문에, 1명은 아마갈독지원으로 프로심판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된다。

금년초실시한 신체검사후 담당의사는두명의 심판에대해 『내리쬐는 햇볕속에 [illegible] 1시간이상 세워둔다는것은 살인행위』라는 소견서를 보내왔다。

한 심판은 평균최고혈압160、또 한사람은 180이었다。직업심판으로 자부했던 이들에겐 「과직선고」나 다름없다。심판에겐 퇴직금도, 보너스로 없다。뜻밖의 질병으로 심판직을 잃게돼도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기본급료역시 정신적·육체적 노동량에비하면 미흡하다는게 이들의 이야기다。

그나마 「프로심판이란는 자부심」조차도그라운드의 열기에 휩싸인 감독·코치 선수들의 거친항의로 여지없이 짓밟히기도 한다。

『대적하는두팀은 언제나 제팀에 유리한 입장을 취합니다。심판은 룰에 따를 뿐이지요。그러나 필연적으로 어느한팀으로부터는 원망을 할수밖에 없지요』

애매한 상황일수록 심판은 원망과 오해를 사기도 쉽지만 뛰어난 자질을 발휘할 수도 있다。

『송구된 볼과 주자의발이 꼭같이 1루에 닿으면 세이프!』

야구팬들이 심심찮게 내리곤하는 유권해석이다。심판들은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라고 머리를 가로젓는다。세상에 그렇게 꼭같은 시각에 볼과 발이 닿을경우는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실제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심판은 아무런 제스처도 취할수 없다。세이프라고 할 것인가, 아웃트라고 할 것인가。

그러나 실제 야구장에서 1루로 달려온 주자에 대해 판정을 포기한 심판은 없었다。심판에게는 오직 「이것이냐, 저것이냐」둘중 하나를 선택할수밖에 없기때문이다。

『심판이 스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어느날 어느게임에 심판이 누구였다는 기억조차 남겨서는 안됩니다』

그자신 국가대표로 스타·플레이어였던 金光哲씨는 10년째의 심판생활에 나름대로 철학을 가졌다。선수나 팬들이 심판의 존재조차 모를만큼 원만히 치러진 게임이야말로 명심판의 작품이란 것이다。【方錫晌기자】

교회안내

가나다순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웨슬레감리				
토론토한인감리	박춘하	주일영어 1:00 주일예배 2:00	75 Canterbury Place	498-7960
●독립교회 (Independent Church)				
가나안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e, W,)	742-7010
대한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621-6340
메시아한인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0 McCowan Rd,	298-1876
벧엘				
성령				
스카보로				
토론토교회	안상엽	예배시간 주일오후 1:00	2 Mobert Rd, Agincourt	494-5007 226-9794
런던한인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686-0224 473-5257
●순복음교회 (Full Gospel Church)				
순복음캐나다				
순복음토론토				
순복음몬트리얼				
●성결교회 (Holy Church)				
베다니성결				
●연합교회 (United Church)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대예배 오후 2시	2500 Mimosa Row	276-5163 277-2394
중앙한인연합	김택규	주일오후 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922-0605
임마누엘		주일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토론토한인연합				
한인연합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1:30	69 William St, Weston	243-9543 743-8082(R)
해밀톤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3:00	1570 Main W, Hamilton	626-4329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개혁장로				
갈보리장로				
동부장로				
딕시장로				
반석				
빌라델비아				
새한장로				
선교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도				
성산				
소망				
시민	조성판	주일오후 2:00, 4:30 금요기도 밤 9:00	662 Pape Ave,	266-4918
영락				
오순절장로				
은성장로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at Danforth & Woodbine)	691-9691 266-8820(R)
제일장로				
충현				
토론토한인장로				
한인중앙장로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St,	245-4980 (전화설교)
런던제일장로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519)439-6331
런던한인장로				
몬트리얼장로				
에드몬톤장로				
키치너·워터루한인	정동석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519)579-0954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시편 100 : 1~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침례교회 (Baptist Church)				
에덴침례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한인침례				
●펜티코스탈교회 (Pentecostal Assemblies)				
새예루살렘	김승환	주일오후 2:00 수요새벽 5:30 중고등영어 오후 1:00 금요저녁 7:30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한인연합펜티코스탈	심상대	주일오후 1:00 -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 대예배	300 Queen's Dr,	223-1914
●기타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토론토한인천주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한인성공회				
●기도원				
오순절기도원				
토론토기도원				
협신기도원				
대한수도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마태복음 8:13)

카나다 韓一銀行토론토지점

문을 열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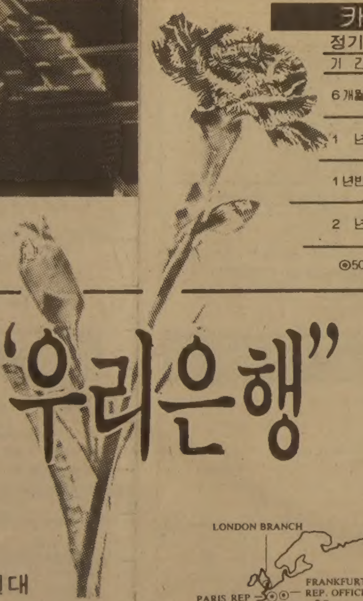
1 First Canadian Place 69 층

손님에게 정성을....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은 금번 새로운 영업장을 **1 First Canadian Place 69** 층으로(2월15일) 이전하여 전반적인 대고객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한일은행은 순수민간은행으로써 반세기를 통한 은행경험을 토대로 손님에게 정성을드리는 친절한 써비스로 교민여러분을 모시고 교민과더불어 성장하면서 교민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민간 은행이 될 것을 다시 굳게 다짐 합니다.

영업안내 865-0456

예금업무	정기예금 (Term Deposit) 당좌예금 (Current Account) 정기적금 (Installment Saving Account)
대출업무	당좌대월 · 적금대출 및 개인사업자금대출 적금담보대출 기업사업자금대출 · 무역금융
수출입업무	신용장 개설 · 상업어음추심 수출화환어음매입 · 기타 수출입 관련 업무
송금업무	우편송금 (Mail Transfer) 전신송금 (Telegraphic Transfer)
기타업무	신용조사대행 · 투자상담 경영상담 (Syndicate, Off Shore Loan)



카네이션 정기적금 월부금표

정기적금의 월부금과 지급액 (단위 : CAN$)

기 간	계약액	월부금	납입총액	지급보충금	특별금리	지급총액
6개월	500	81.44	488.64	11.36	6.07	506.07
	1,000	162.88	977.28	22.72	12.14	1,012.14
1 년	500	39.68	476.16	23.84	10.99	510.99
	1,000	79.36	952.32	47.68	21.98	1,021.98
1년반	500	25.84	465.12	34.88	14.84	514.84
	1,000	51.68	930.24	69.76	29.68	1,029.68
2 년	500	18.92	454.08	45.92	17.93	517.93
	1,000	37.84	903.16	91.84	35.86	1,035.86

◎500불 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 한 배수입니다.

새로운 "우리은행" 탄생!

HANIL BANK'S OVERSEAS NETWORK

한일은행의 특징

1. 저희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 및 대출의비밀을 절대 보장하여 드리겠읍니다.
2. 저희 은행은 후한 이자에 저렴한 대출로 봉사하겠읍니다.
3. 저희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에 대하여 CDIC보험은 물론 한일은행 서울본점이 보증합니다.
4. 저희 은행은 특히 예금에 대하여는 별실에서 비밀로 취급 처리하여 드리겠읍니다.
5. 저희 은행 카네이션 적금은
   (1)푼돈으로 목돈 마련에 편리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불입도중 원하시면 불입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융자하여 드리겠읍니다.
   (3)계약금 범위내에서 원하시면 대출을 받으실 수있읍니다.
   (4)바쁘시면 통장과 함께 부금액을 수표로 보내주시면 정리하여 통장을 보내드리 겠읍니다.
   (5)부금의 연체가 없으신 분은 만기시 당행 소정의 특별 보너스를 선사하여 드리겠읍니다.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
HANIL BANK CANADA
TORONTO MAIN BRANCH
P.O. BOX 262
SUITE 6960, 1 FIRST CANADIAN PLACE
TORONTO, ONTARIO M5X 1C9
☎ 865-0456

쉬지 않고 가는 시간, 쉬지 않고 느는 이자 ◎목돈마련의 지름길 한일은행 카네이션 적금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전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 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뎀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금: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RASCO 냉동 -★에어콘, 히팅, 워킹쿨러, 후리저,
Washers, Dryers, Stoves등등 시설·판매수리.
전화: 439-0047 Mr. 최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이삿짐센타

이사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전화 : 533-9233 Mr. 유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저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총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자동차 수리 (파타임)
수리 일체에 관한 일
전화 : 291-4547 Mr. 윤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트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트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광고문의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여자 룸 메이트 구함.(1Bed Room)
○베다스트와 에그링톤
전화: 782-9777(저녁 5시30분이후)

4 Bed Rm 타운하우스에서 같이 지낼 독신 여자분 구함.
Hwy 401 × 빅토리아파크. 월: $170.-
전화 : 449-1913 Mrs. 채

출퇴근하시면서 3살난 아이 돌보아주실 분.
주6일(화요일-일요일). 월요일 쉼. 다운타운지역
전화: 368-6544 Mrs. 리

Multi-Million달라 Herbal 화장품회사에서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쎄일즈 하실 분을 구합니다.
◉안정성있고. ◉자신의 비지네스고,
◉수입이 좋음.회사에서 트레인을 시킴.
전 화 : 364-8932

도넛숍 여자 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Mrs. 김

스토아 파타임 남자헬퍼 구함.
낮에 일할 분.
전화 : 488-1634 (저녁 6시 이후)

출퇴근하며 유치원다니는 남아(5세) 돌보실 할머니 구함.
시간 : 11시~오후5시까지(주중만)
전화 : 487-8665 (오후4시 이후)

풀타임, 가발 만드실분 구함.
다운타운 위치. 커다란 가발회사
남자 가발 만드는데도 경험이 있어야 함.
색갈도 들여야 하고 가발 바느질 잘해야함.
영어를 할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함.
전화 : 977-1122 Mr. SCIARA

KOREAN UNIVERSITY STUDENT

Graduates or near graduate person are required to represent an international Canadian company on Korea. Must have a high level of energy and dedication and be specializing in Business and Commerce.

There will be an intensive training program in Toronto and will in future be promoted to a technical representative in Korea. An attractive renumeration package in U.S. Dollars is available to the successful candidate.

Please contact Mr. SCIARA Phone: 977-1122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실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221-2556 Mrs. 리(Finch & Yonge 근처)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광고문의 533-2361

매 매

Building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Ossington & Bloor 지역
전화: 531-1023, 851-4116

레스토랑 매매
전화: 251-1423(오후7시 이후~10시까지 Mr. 이)

헐리우드 복덕방 리스팅
◉2층 4베드룸, 부엌 2개, 목욕탕 4개, 차고 2개
넓은 파킹 Lot.(로얄욕×에그린톤)
전화: 746-4360 JOE DI LILLO
◉Fast Food 비즈네스 달린 빌딩(영×리치몬드)
비즈네스와 부동산 $550,000 또는 비즈네스 $200,000+스탁+렌트
전화 : 746-4360 Joe Tanzos
◉Gift Shop(캐나다스 원더랜드 근방 플라자내)
아스킹 : $22,900 전화 : 746-4360 Mr. TANZOS
Hollywood Real Estate Ltd.

Tuck Shop 급매(해밀턴 지역) ◉300세대 성인아파트, 인근 타운하우스. ◉드라이크리닝-사진취급. ◉안전사업, 입주가능. 아스킹: $19,000+스탁. 1-561~1911 Mrs. 정(저녁 6시

베커 프렌차이즈 스토어 매매
전화 : 633-4983 Mr. 최(오후 1시이후)

해밀턴에 성업중인 가게 급매.
전화 : 1- 560-0612 Jimmy (오후2시에서 밤12시)

▲모텔: 나이아가라 지역, 13 Units.
35 Units 과 237 의자있는 타번.
49 Units-높은 소득, 135 Units-좋은 장래.
▲타번: 400 의자-높은 인캄, 110 의자-좋은 지역.
Century 21, Darel Properties Inc. Member Broker.
Niagara Falls, Ont. 전화: (416)356-2121

가게 장비일절 매매, 캐쉬레지스타 1개, 유리 쇼우 케이스 2개, 카운터 테이블 1개, 옷걸이 3개, 선반재료 다량, 염가로 매도함. 전화 : 967-4461 Mr. 용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3447 St. Clair Ave. E.(at Birchmount)
전화: 265-9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2층에 살림집 있고 렌트 월 $600. 2년+5년 옵션. 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람. 247-1090

아담하게 꾸며진 미용실이 딸린 3층건물 팝니다.
서브웨이에서 1 Block
전화: 463-7423(B), 461-3363(R)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Smoke + Gift 가게 팝니다.-벌링턴지역
◉$400,000 Turn over/연매상
◉7년리스 $1,100/월렌트.
◉Asking: $81,900
Many Extra Income, Lottery Video
581 Brant St. 전화: 1-637-2609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A division of SFZ International, Ltd.
자녀들의 필수교과서 "WORLD BOOK" 백과사전 총 22권 · Special 가격으로 판매.
문의처 : 533-2364 김
767-1702 (오후 6시이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미도파백화점 2층 Rooming House 렌트
주: $50.- 씽글침대, 가구 준비되어 있음. 교통 편하고 쇼핑보기 편리함. 전화 : 536-1692

타운하우스 렌트 혹은 매매, 3 Bed Rm.
쇼핑쎈타및 학교 지하철 가까움. 동부 한국식품 근처.
렌트: 월 $630. 전화 : 439-4885

가게(800 Sq.Ft. 월 450 / 렌트) 같이 쓰실분 구함.
Wilson + Dufferin 지역.
전화: 635-7154 Mrs. 김

방 하나 세놓음.
◉월: $150
전화: 466-2455(저녁6시 이후) Mrs. 조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1440 Bathurst St. (21 Vaughan Rd.)
전화 : 657-1785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 (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전화 :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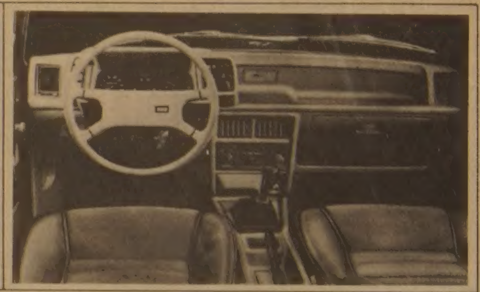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방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바이크식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금번 「토론토 인터내쇼날 오토 쇼'83」에 「현대」의 pony를 출품하게 되었읍니다.

부디 왕림하셔서 「한국의 자동차」를 품평하여주시고, 지도하여주시고, 그리고 격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월 11일~2월 20 일
장소 : 토론토인터내쇼날센타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카나다 사무소

96 STEELCASE ROAD WEST, MARKHAM, ONT.
Phone (416) 477-0202
Telex 06-986306 HDPONY

디자인·[illegible] 광고 (416) 789-7361 / 789-7352